

FORTUNATE POCHEON

2020 포천시 공동체 자원 조사 사례집 ■ 청정한 환경과 행운, 운수 좋은 도시 포천

공동체를 엮다



FORTUNATE POCHEON



2020 포천시 공동체 자원 조사 사례집 | 청정한 환경과 행운, 운수 좋은 도시 포천

공동체를 엮다





차례

contents

008 발간의 글 ————— 포천시장 박윤국

010 하나, 마을과 함께

- 012 01 교동장독대마을
- 018 02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 024 03 지동마을
- 030 04 가래울영농조합
- 036 05 울미연꽃마을
- 042 06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

048 둘, 사람과 함께

- 050 01 호병마을
- 056 02 박차고
- 062 03 새터나눔
- 068 04 산꽃마을공동체
- 074 05 산정목공예





080	06 The공감
086	07 꽃뚝공동체
092	08 오성과 한음
098	09 정서개선배움터
104	10 스마트팜정원랜드
110	11 위더스
116	12 필름메이커
122	13 민스교육
128	14 헤이, 포천31
134	15 소통하는 금주3리
140	16 달맞이꽃사랑봉사단
146	17 푸른꿈블루베리마을
152	18 감성마을한마당
158	19 뽕따는 사람들

164	20 포천여성합창단
170	21 한사랑마을학교
176	22 백운계곡협동조합

182 셋, 세대와 함께

184	01 나누리가구
190	02 골든네불라그룹
196	03 천년관솔
202	04 늘푸름섬유
208	05 여명산업

214 포천마을활동가_코링커

216	미니인터뷰
-----	-------

공동체는 정책 공동생산자이며 시정 동반자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를 엮다’를 발행하게 된 것이 더욱 특별합니다. 함께 마주하고 체온을 느끼고 공감하며 사업활동을 해야 하는 공동체 사업이 더욱 힘든 한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을 겪을 때 대한민국 공동체는 정부의 대응책에 맞춰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갔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포천공동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잡성의 시대입니다. 이젠 공공과 시장의 기존 역할만으로 예측과 단선형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시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의 의제를 발견하고 재정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시도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미 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밀그림 공동체가 78개소에 이르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농업농촌, 귀농귀촌 등과 연관된 시민참여 정책도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결집해 공동체가 든든한 시정 동반자로 성장해야 할 때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공동 생산자로 더욱 활발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모든 역량을 주민자치공동체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14개 읍면동에 여러분이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 생산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청년공동체와 마을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도록 경제공동체 육성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육성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조직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공동체 여러분. 넘치는 긍정에너지를 잃지 마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초겨울
포천시장

박원우



하나,



마을과 함께

01

어머니의 품처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기업의 내일을 만들고 있는

교동장독대마을

대표자명 이수인
구성원수 대표 외 25가구 83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연 락 처 (031)534-5211

이름에 담긴 뜻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며,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있는 곳,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장독대를 연상하여 만들게 되었음

주요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마을기업, 팜스테이, 멀베리카페, 마을정원 만들기, 융복합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장류사업, 꽃감사업, 공유정원 만들기

2021년 목표 마을 유희지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모든 방문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유정원을 만드는 것

홍보채널
<http://www.교동장독대마을.com>
<https://www.facebook.com/jangdok5211/>
<https://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12307688>
<https://www.facebook.com/jangdok5211/?ref=bookmarks>
<https://www.instagram.com/gyodongjangdokdae/>



연혁

- 1999년 농협 중앙회 팜스테이 마을 지정
- 2002년 전국 농촌 마을 가꾸기 우수상 수상
- 2004년 1사 1촌 결연(주)라인테크 시스템
- 2006년 범죄없는 마을 선정
- 2006년 1교 1촌 자매결연(현대고등학교, 은평중학교)
- 2007년 농협 팜스테이마을 협동조직 대상 수상
- 2011년 마을기업 선정,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 2012년 평생학습마을 지정
-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 으뜸촌 지정
- 2018년 지오빌리지 마을 지정
- 1989년 농촌진흥원장 표창
- 2006년 경기도지사 표창
- 2007년 협동조직 대상
- 2011년 농업기술원장 표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
- 2013년 경기도지사 표창
- 2014년 국무총리 표창
-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2019년 국무총리 표창
- 2012년~2020년 KBS, SBS, MBC, OBS, 등 연 2~3회 방송
- 2011년~2020년 시민일보, 경인, 인천, 인터넷뉴스, 서울, 매일, 농민신문 등 연 5~6회 보도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 전에 받은 상장더미를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는 욕심이 많아 공부도 곧잘 하고 상장도 많이 받았었다. 역시 나는 뭐든지 잘하는 애였어...

“작가님, 오늘 인터뷰하는 곳은 대통령표창 빼고 모든 상을 받은 마을이래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을이길래 그 많은 상을 받았을까.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많은 궁금증을 안고 교동장독대마을을 찾아갔다. 마을이름처럼 세상의 모든 장독들을 모아 놓은 듯 했다.

“마을이 참 예쁘네요. 동화책 속에 있는 거 같아요.”

“이 동네는 원래 광산촌이었어요. 그래서 토박이보다 외부인이 더 많았지요. 광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농업을 서비스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먹는 3박자 농업을 해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끼리 노력하고 운영해왔던 것이 지금의 장독대마을이 되었단다. 아마도 모 방송프로그램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될 듯한데, 대화를 나눌수록 재밌는 곳이다.

“농촌체험 1호마을이 되었어요. 외국인 손님이 먼저 왔는데, 체험인은 45명이지만 손님만 160명 정도였으니 준비가 덜 돼서 결국 마이너스였죠. 마을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수마을이나 환경생태마을, 산촌마을처럼 대한민국의 농촌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체험 위주로 진행했지만 ‘접시에서 밥상까지’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접시로 못자리를 만들어 집에 가져가서 모가 자라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탐구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단위 체험이 늘면서 100평의 논에서 1,6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전통 장 만들거나 떡만들기 체험처럼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마을카페와 마을숙박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체험강사님이 모두 지역 주민들이 라면서요?”

“맞아요. 체험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창의 미술이나 미술심리 같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1인 1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16개까지도 취득한 분도 계시죠.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밸런스를 맞춰줘야 체험 효과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땐 모든 분들이 의기투합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과거를 회상하듯 잠시 생각에 잠기신 모습을 보니 괜한 질문을 했나 싶은 그때.

“짜늘한 반응이었죠. 소득이 따라와 준다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뭘 하자’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광산촌이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먼저였다고 한다. 왜라는 것을 알아야 마음이 합쳐질 수 있으니까 “왜 반대하십니까?”라는 물음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다녔다.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라고 마음이 합쳐지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공동체는 비전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체험마을을 하자 해서 시작했지만 어떤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하죠. 10년 전, 농촌체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연금을 주자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70세부터 연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만큼 복지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케어하며 살아야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공동체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머물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교동장독대마을은 마을 전체를 공유정원으로 만들어 담장과 대문이 없는 마을,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동네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안아주는 장독대마을. 그 품속에 들어와 따스함을 얻어가는 하루였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삶 속에 학습이 있고 학습 속에 삶이 있는 공동체마을입니다.



02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자연 잘 물려줘야 하니까



현재의 우리보다 미래의 그들을 위해 고민하는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대표자명 유재환
구성원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20명 조합원
주 소 포천시 영중면 가영로 535번길 155
연 락 처 (031)532-4438

이름에 담긴 뜻 영평1리, 영평2리, 영송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화합이 잘 되는 공동체

주요사업

- 퇴비 생산
- 운반 사업 : 대형 탱크로리 6대 운영, 포천시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포천바이오가스, 두엄바이오 등 공공자원센터로 운반

2021년 목표 친환경 유기질 1등급 비료를 생산하여 타 지역에 25만 포를 판매하는 것

홍보채널 박사퇴비 : m.blog.naver.com/ana1477(네이버 블로그)



연혁

- 2010년 11월 10일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4년 09월 ~ 가축분퇴비 생산
- 2014년 11월 11일 제주도 축산농가 견학 방문
- 2014년 12월 04일 현대제철 축분연료 200톤 납품
- 2015년 04월 03일 제주도 서귀포시 축산과 공무원 견학차 방문
- 2015년 11월 03일 아프리카 모잠비크 유기질비료 5만톤 수출
- 설립 후 ~ 현재 영평초등학교 졸업생 전원(1인당 20만원)장학금 전달



친척이 없는 관계로 외양간이나 돼지농가를 볼 수 있는 시골을 가본 적 없는 나는 기대 반, 걱정 반, 포천으로 발길을 옮겼다.

“저, 여기가 영평영송, 또 뭐더라.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는 영평1리와 영평2리, 영송리, 3개리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마을회사라 이름이 좀 길어요.”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들은 축분뇨에 대한 고민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환경 보존 사업은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뛰어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포천시 저탄소녹색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였죠. 영평1리와 영평2리, 영송리 380가구 정도가 포천시에서 나오는 우분을 축분연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시는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기초단체예요. 특히 양계농가와 육계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포천시에서만 해도 엄청난 양의 우분이 나오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탄소량을 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축분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판로가 없으면 판

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축분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계분을 활용해서 1등급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연간 20만 포 이상을 판매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마을기업은 소득창출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포천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이라는 게 많이들 쓰는 말이지만 요즘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아껴쓰고 사랑으로 돌봐야 후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고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을 때렸다. 그래, 난 빌려 쓰고 있었던 거야,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물려주는 것이 맞지...

퇴비를 주요 생산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축분뇨를 운반하는 사업까지 발전시켜 포천시 축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그들은 포천시의 축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공동체에 임하고 있었다. 환경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사명감을 내비쳤다.

“처음에는 조합원 모집공고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호응도가 너무 낮았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한 명, 한 명 설득하러 다녔어요. 힘들 때면 처음 조합 설립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벌써 10년이나 되었





네요. 지금은 14명 모집하는데도 50명이나 지원해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저희 조합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오랜 시간 쌓은 신뢰는 실망시키지 않으니까요.”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여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고, 하나되어 뜻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는 대표의 말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자 목표라 한다. 포천(안을 포, 내 천)은 산들이 물을 안고 있어 자연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아 아늑하고 울타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포천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이곳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수익이 높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도 힘든 상황이지만 독거노인이나 학교



에 기부하고 있어요. 수익이 좀 더 창출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품질도 높이고 홍보하는 것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죠. 무상으로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해주기도 합니다.”

매년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품질교육을 받으며 많은 배움을 얻는다는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우수한 액체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하고자 포천바이오가스나 두엄바이오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기술력을 더 탄탄히 다져가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빼놓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후에는 조합원들과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에 의해 무언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제일 빛이 나는 것 같다.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의 아우라가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포천시 축산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착한 기업입니다.



03

사람들이 행복한 마을로 변신 끝 ~



부자마을보다는 앞서가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는
지동마을

대표자명 이관영
구성원수 대표 외 5명
주 소 포천시 신북면 지동길 93-10 천년수은행나무아래
연 락 처 (031)535-5399

이름에 담긴 뜻 지동(紙洞)은 우리 마을의 고유한 이름으로 그 뜻은 닥채나무와 삼을 심어 '창호지를 만들고 삼베를 짜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함

주요사업

- 고령화로 인해 유향화 되어가는 농경지에 해바라기, 메밀, 황하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치유농업으로 전환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과 휴식, 치유가 있는 관광마을 조성
- 귀농 귀촌인들에게 산지, 농업유향지를 임대하여 산촌사업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유능한 인재 유치
- 잣숲캠핑장 운영으로 마을의 청정한 환경과 지역 특산물 홍보

2021년 목표

- 마을 인프라의 원활한 재가동과 가치제고
- 작은 마을축제 '잣숲에서 어느 멋진 날' 정례화
- 마을협의체 관심유도와 인적역량 강화

홍보채널

홈페이지 : 포천지동산촌마을 <http://jidong.invil.org>

네이버블로그 : 지동산촌생태정보화마을 <https://blog.naver.com/44446394>

연혁

- 2006년 산림청에서 산촌마을지정 (산촌개발사업)
- 2006년 행정안전부(정보화마을로지정) 정보화교육
- 2008년 잣잎차 공장 준공, 잣잎차 상품화
- 2008년 잣 따기, 잣 까기 촬영
- 2014년 마을기업지정
- 2015년 정보화마을 장려상
- 2017년 정보화마을 우수상
- 2020년 정보화마을 지도자상



직업 특성상 펜과 노트를 끼고 살아와서 그런지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지동마을을 취재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종이를 만들었던 곳일까, 지금도 고급스런 한지를 만들고 있을까, 그럼 색깔별로 사야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지동마을 입구에 섰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동마을 이름이 참 좋아요.”

“닥채나무와 삼을 심어 ‘창호지를 만들고 삼베를 짜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지요. 현재 행정구역상 신북면 ‘금동2리’지만 옛 것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철학에 맞고 그 발음이 소박하고 부드러워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이름을 정할 때 마을을 상징하는 천년수은행나무를 살려 ‘천년수’라는 이름과 예로부터 불려온 ‘지동’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이 분분했고 ‘천년수’를 선호한 마을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뜻에 따라 ‘지동’으로 최종 결정됐죠.”

“대표님 18번 노래가 ‘아침이슬’이라면서요? 그 노랫말처럼 ‘절대 포기는 없다.’는 신조로 마을 발전을 위해 주야장천 뛰어다니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허허허. 그래요?”

“저는 지동이라고 해서 한지를 만드는 마을 기업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방산 사냥길에 천년수 아래 고옥에서 잣죽을 맛본 이후 진상품이 됐고, 이것이 영양식 타래잣죽으로 전수됐다고 해요. 과거에는 신선이 먹고 불로장생한다는 잣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지요. 잣은 오랫동안 우리 마을의 주된 경제원이었고 그때는 집집마다 풍요가 넘쳤어요. 하지만 90년대부터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자 생산량도 줄고 남부쪽 잣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평에게 1등자리를 내주게 되었죠. 마을의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 최대 잣 생산지로서 명예를 되찾고자 마을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말처럼 ‘잣’ 하면 가평이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이다. 그럼 지동마을은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잣 생산량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잣잎을 이용한 액상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발굴했고 포천시의 지원으로 잣잎차 특허도 받았어요. 170만평의 청정 잣숲은 잣뿐만 아니라 잣잎차 원료가 되어주고 잣숲캠핑장을 운영해서 마을에 활력과 지역 특산물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죠. 또한 유희화 되어가는 농경지에 해바라기나 메밀, 황하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치유농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귀농 귀촌인들에게 농업유희지를 임대해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말 좋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고 있고요.”

“저도 재능기부 많이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도 있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네요.”





“맞아요.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뛰어난 사람보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 애
향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과 정을 나누고 모임을 만들어 전문인과 협업을
통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жат과 축산으로 쌓은 ‘부자마을’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농촌의 긍정적
인 변화를 모색한 선진적인 마을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구현하려는 이상을 미리 읽고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
쓴 결과일 것이다. 이는 분명 타 지역사회의 부러움과 시샘도 있겠지만 자기분발의 촉매제
로 작용했을 것 같았다.

지동마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달라는 부탁에 ‘봉(鵬)’을 꿈꾸는 나비라고 표현해주셨다. 이
건 무슨 뜻이지? 웬지 어렵다.

“『장자(莊子)』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봉이라는 거대한 새가 나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연약한 ‘나비’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봉새처럼
큰 날개를 펼칠 겁니다.”



170만평의 잣숲으로 이어지는
 포천 하늘 아래 ‘치유의숲’에서 지동마을
 천년수은행나무까지 둘레길을 걷고 사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잣숲에서 어느 멋진 날’이라는 작은 마을축제를
 어메이징파크와 허브아일랜드까지 연결해 관광객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란다. 잣숲에서 어느 멋진 날을 보낼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봉(鵬)’을 꿈꾸는 나비가 아닌 진정한 봉새가 되어 훨훨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우리는 ‘봉(鵬)’을 꿈꾸는 나비~

04

고소한 바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성과 열정으로 모던방앗간을 꿈꾸는
가래울영농조합

대표자명 이봉환
구성원수 대표 외 4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포천로 2782
연 락 처 (031)532-1989

이름에 담긴 뜻 마을의 옛 지명으로, 가래나무가 많다 하여 가래울로 불렸다고 함

주요사업 참기름, 들기름, 두부, 콩물 등 깨와 콩을 가공한 식제품

2021년 목표 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농업을 목표로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연혁 2013년도 설립







가래나무가 우거진 그곳에 가면 고소한 깨냄새가 풍기기 시작한다.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울, 가래울하다가 가래울마율이 되었다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3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가래울은 마을의 주요 생산품인 들깨와 콩으로 만든 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참기름이고 들기름, 생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미숫가루, 두부,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콩물도 판매하신다면서요. 제품명과 제품이 눈에 확 들어오고 패키지도 디자인도 좋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럽네요.”

“젊은 소비층에게 세련된 디자인과 신선한 이름으로 구매욕을 당기게 하는데 한몫 했죠. 또한 자체적으로 콩류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생산해오던 마을이었고 다른 농산물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시장진입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래울영농조합은 특별하게 시작되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마을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민 모두가 고심하다가 마을에서 주로 생산하는 콩류를 집중적으로 특성화한 6차 산업에 뛰어들기로 의견이 모아졌지요.”

처음에는 시도조차 불안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가래울영농조합. 2018년에는 공영홈쇼핑에 진출해 제품을 판매했고,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SACOOP) 싸쿱에 생산자 등록을 마쳐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다. 또한 마을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고객유치 전략으로 남은 상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펼쳐 올해는 흑자사업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솔직히 농업마을에서 6차산업 영농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시스템이라 그런 메리트가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신뢰도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식 대량생산이 아니기에 품질을 보장하고 있죠. 둘째는 세련된 콘셉트를 손꼽을 수 있어요. 요즘 농산물로 산업화하는 마을은 많이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이제는 보편화 되어서 눈에 띄는 콘셉트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재미있고 용기도 예쁘군요.”

“‘바람이 싣고 온 고소함’이라는 슬로건과 ‘모던방앗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을 정하면서 젊은 소비층에게 세련된 디자인과 신선한 이름으로 구매욕을 당기게 한 것이죠.”





감각적이면서도 전통방식에 따른 노하우가 더해져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최상의 먹을거리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래울영농조합.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

콩 제품을 이용한 음식에 저희가 만든 제품을 함께

결들인다면 더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가장 건강
기 때문입니다.”



요.

한 맛을 전해드릴 수 있

우리 식탁으로 바람이 실어다 주는 고소함이 전해진다면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한껏 부푼 마음으로 젓가락을 드는 순간이 더 설렐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에도 건강한 고소함을 가져다 줄 가래울영농조합 상품을 이용해 보고픈 마음이 들었다. 이들이 실어다 줄 건강한 바람을 기대하며...

“대표님, 들기름세트 하나 사가도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정성으로 일군 농산물을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마을기업



05

연꽃의 향기를 더 멀리 퍼트립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탈바꿈하는
울미연꽃마을

대표자명 이주연
구성원수 대표 외 2명
주 소 포천시 군내면 꽃산배길 86
연 락 처 070-4221-9988

이름에 담긴 뜻 공동체가 위치한 명산리는 효자가 땅을 파자 산이 울었다는 설화에 따라 명산으로 알려져 울미(울뢰)라고 불렸고 연꽃을 테마로 하는 휴양 마을이 되고자 지음

주요사업

- 연꽃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연꽃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 연꽃 마을 바꾸기

2021년 목표 도시락 사업 진행의 체계화와 마을 힐링 정원사업의 진행,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로 가꾸는 것

홍보채널

홈페이지 <http://포천울미연꽃마을.com>
네이버블로그 bpplan
페이스북 포천울미연꽃마을
인스타그램 woolmi_2019

연혁

- 2018년 2월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출연
3월 지역개발사업 대통령상 수상
8월 KBS <생생정보> 출연
- 2019년 3월 KBS <동의보감> 출연
- 2020년 3월 식품제조업 등록
6월 휴게점업 등록
8월 광릉숲 사업 진행



몇 년 전, 어느 산사에 갔다가 시기가 맞아서인지 활짝 핀 연꽃무리를 본 적이 있다. 하도 예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면서 울미연꽃마을로 향했다. 울미연꽃마을 이주연 대표는 고령자만 있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향으로 귀농한 분이라고 했다. 더 빨리 만나고 싶어졌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네요. 공장지대를 지나 작은 고개를 넘고 나니까 다른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참 예쁘죠? 산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앞쪽의 작은 산들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울 ‘명’자와 ‘산’을 붙여 명산리라고 불리죠. 우리말로 ‘울미’라고도 하고요. 원래 이곳은 고성 이씨 집성촌이에요. 지금도 마을 주민의 80%이상이 고성 이씨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이씨구나...’

“포천의 깨끗한 자연을 계속 지켜나가자는데 마을사람들의 뜻이 모였어요. 그래서 흔히 버릴 것 하나 없다고 말하는 연을 키워보기로 의기투합했죠.”

‘더 잘사는 마을’보다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은 마을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힘 합쳐 원래는 논이었던 곳을 개조해 약 7천 평 규모의 연꽃단지가 탄생했던 것이다.

“연을 어떻게 재배하는지는 모르지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연을 재배하고 수확해 상품으로 만드는 일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켈 힘들었습니다.”

“하긴 무엇을 재배하든 사람 손이 꼭 필요하죠.”

2017년 문을 연 ‘울미연꽃마을’은 여름이면 마을을 채우는 그윽한 연꽃향과 이색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과 블로거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018년에는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 최우수마을로 선정돼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고 한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한 덕이었다고 하니 주민들의 끈끈한 연대가 부러웠다.



“오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아, 봉사단이에요.”

“봉사단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봉사하시나요?”

“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봉사하듯이 그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직접 봉사하면서 우리나라 농촌과 삶의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시죠.”



밖의 풍경이 너무 좋아 자리를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저수지 앞 데스크에 서서 일몰을 보자 왜 가슴이 뭉클한지 목소리가 떨



려왔다. 밀레의 그림 만종이 생각나는 풍경 때문인지, 열심히 살아온 이주연 대표의 씩씩한 모습 덕분인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아주 가까이서 연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울미연꽃마을은 사실 규모가 작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손 내밀어 연꽃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자연스럽다.

“이곳은 마을카페인가요?”

“네 맞아요. 연꽃마을을 걷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쯤 ‘연화정’을 들르시면 좋아요.”

“여기는 단순히 차만 판매하는 곳이 아닌 거 같아요.”

“연잎차는 물론이고 연잎이동갈비와 연잎밥, 연잎 물냉면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연잎차와 연잎밥은 뛰어난 향과 맛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연을 가공해 차와 식자재를 만들고 있는 울미연꽃마을은 포천의 깨끗한 물과 기름진 토양 덕분에 연잎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뷰 하면서 마신 연잎차 향이 아직도 내 코를 간질거리고 있다.

“‘연화정’에선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목적 체험으로 연잎밥 만들기, 연근 캐기, 연잎비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지만 연꽃으로 만든 고급차나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지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자본을 출자해 법인을 세운 후 논을 임대해 연못으로 꾸미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부 논만 연못으로 변경한 상태라고 했다. 앞으로는 2만 평 규모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더 잘사는 마을’보다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은 마을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열정이 석양노을과 교차되어 붉게 피어난 연꽃을 연상케 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아름다움에 반해 계속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듭니다.

06

‘한탄’이란 이름이 ‘찬탄’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해야죠



다른 재능끼리 뭉쳐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

대표자명 이건재
구성원수 대표 외 2명
주 소 포천시 영북면 북원로 255번길 9-41
연 락 처 010-8192-0315

이름에 담긴 뜻 한탄강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로, 물과 밀접한 생활을 해서 레저사업을 통해 한탄강이야기를 풀어보기 위해 지음

주요사업

- 카약투어 서바이벌 산악오토바이(이륜)
- 분노조절 표출 프로그램
- 한탄강 정화사업(비공식적)

2021년 목표 도시 재생산업에 선정되어 서바이벌 체험 리그전 행사를 통해 한탄강 8경의 아름다움과 화적연 뮤지컬 공연 행사 진행

연혁

2018년 10월 설립
2019년 03월 마을기업 지정





철원과 포천을 거쳐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 민족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질러 흐르기에 이름조차 한탄일까? 사실 나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한탄(漢灘)이란 ‘한여울’, 큰 여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오해하기 십상이다.

“포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고 흘러나간다고 해서 물을 품거나 감싼다는 안을 포(抱)자를 사용한다면서요? 물을 안아준다는 표현이 참 따듯하네요.”

“대개 한탄강을 생각하면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포천시가 가진 따듯한 것처럼 한탄강에 온기를 품기 위해 ‘한탄강이야기 협동조합’을 설립했던 거죠.”

“다른 마을기업과는 콘셉트가 좀 다르네요. 이유가 있나요?”

“단순하게 그저 마을 농산물만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한탄강 속에서 풀어나가는 다양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함축한 한탄강이야기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길게 굽이치는 강줄기처럼 자신의 개성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한탄강에서 카약을 최초로 시작한 철원 쪽은 오히려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 래프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포천 쪽의 한탄강 지류는 철원보다 급류가 적고 물살이 약해서 카약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탄강의 특성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진재 대표는 카약을 타며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일곱 가지 감정을 물결에 따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강을 타다보면 잔잔한 구간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감상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그러다가 급류구간을 만나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심장이 뛰게 되죠. 이렇게 강을 따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만나고 풀어버릴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경험을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데에는 김미향 씨의 역할이 한몫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던져봤다.

조합의 일원인 그녀는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분노조절장애 협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공부하면서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닌 풀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으로 한탄강 속에서 강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를 표출해 던져버리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단다. 이외에도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산악오토바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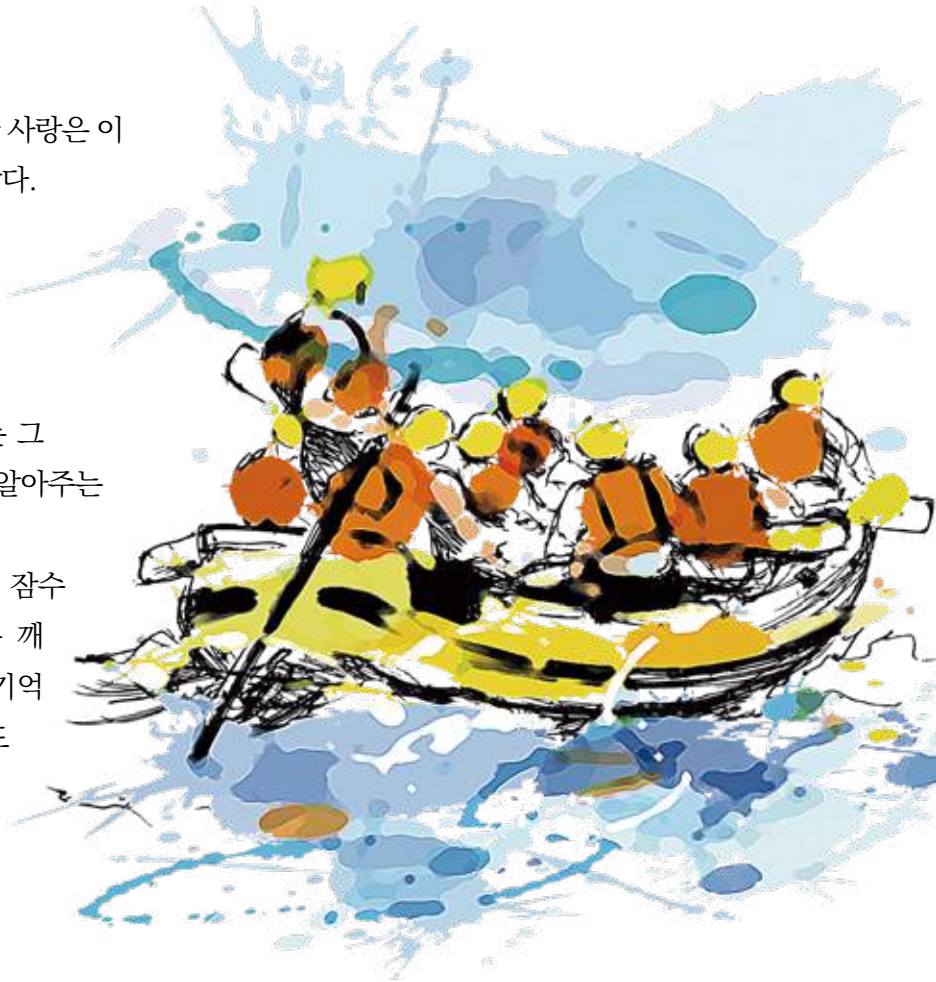


어 자연을 좀 더 익사이팅하게 만나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탄강이야기는 다른 마을 공동체보다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직한 농부들, 영상 산업단과 같은 다른 커뮤니티들과도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탄강과 관련한 문화행사도 열정적으로 유치 중인데, 그중 한탄강 8경 중 하나인 화적연 뮤지컬도 작년에 진행했죠. 비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코로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카약대회 유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탄강을 향한 사랑은 이
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비공식적인 사업이
지만,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통해
서 좀 더 맑고 깨끗
한 한탄강을 간직하려는 그
들의 노력을 한탄강도 알아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겨울에 얼음을 뚫고 잠수
를 하면 가슴 시리도록 깨끗한
한탄강의 물속을 기억
하는 그들은 올 겨울에도
그 깨끗한 세상을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
이다.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인식과 홍보 부족이라고 한다. 다른 마을 공동체와는 남다른 차별성을 두었는데도 홍보나 인지도가 널리 퍼지지 않아서 곤욕을 겪은 때도 많았다고. 한탄강이야기의 가능성에 좀 더 귀기울여주지 않는 점이 안타까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배려와 공생을 목표로 나아가는 한탄강이야기 협동조합에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생기길 바란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한탄강 속에서 풀어나가는 다양한 이야기



들,



사람과 함께

01

함께라서 더 행복한 호병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음 모아 전통을 이어가는
호병마을

대표자명 이한규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왕방로97번길 33
연 락 처 010-6359-5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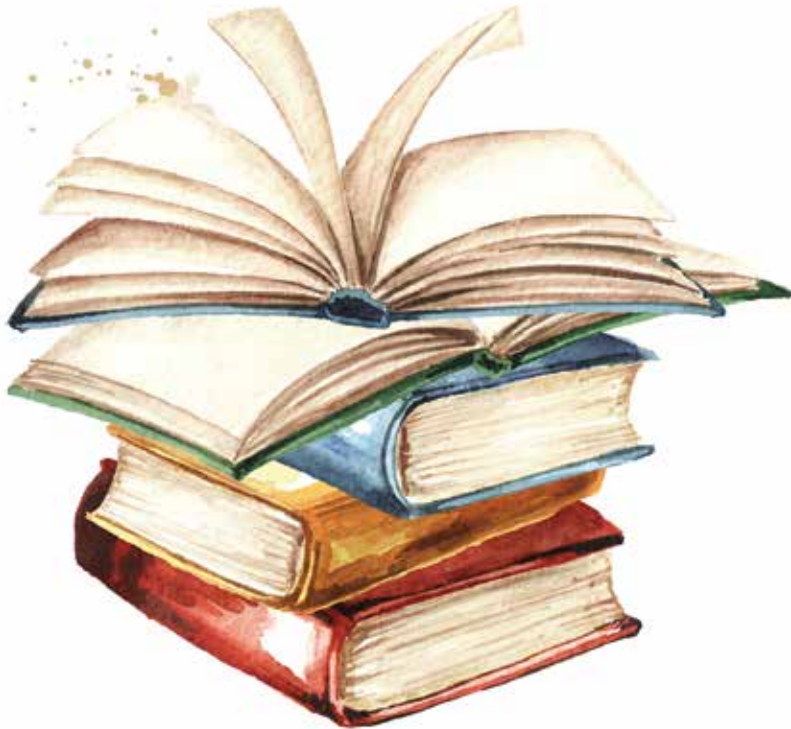
이름에 담긴 뜻 전통 마을의 발전을 위한 호병마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그대로를 담았음

주요사업 호병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 책 출판 사업
(마을이 지닌 역사적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물로 제작)

2021년 목표

- 포천시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에서 상위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
(포천동 대표로 출전)
- 마을 어르신 이야기 출판 사업

홍보채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cky7504>



연혁

- 2014년 04월 ~ 11월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1차 선정 및 수료
- 2015년 04월 ~ 11월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2차 선정 및 수료
- 2016년 04월 ~ 11월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3차 선정 및 수료
- 2016년 01월 05일 포천시민과 동민을 위한 호병지를 이용한 무료 쉼매장 개장
- 2017년 11월 10일 호병마을 안내소 개소 및 마을 표지석 제막
- 2019년 ~ 현재 마을 진입로 확대 사업(포천시와 협의 후 진행 중)
- 2020년 05월 호병마을공동체 등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동화 같은 옛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여기 신읍4동 호병마을에는 오랜 이야기들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마을의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는 사람들. 마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곧 마을의 역사라고 말하는 호병마을 공동체 이한규 대표를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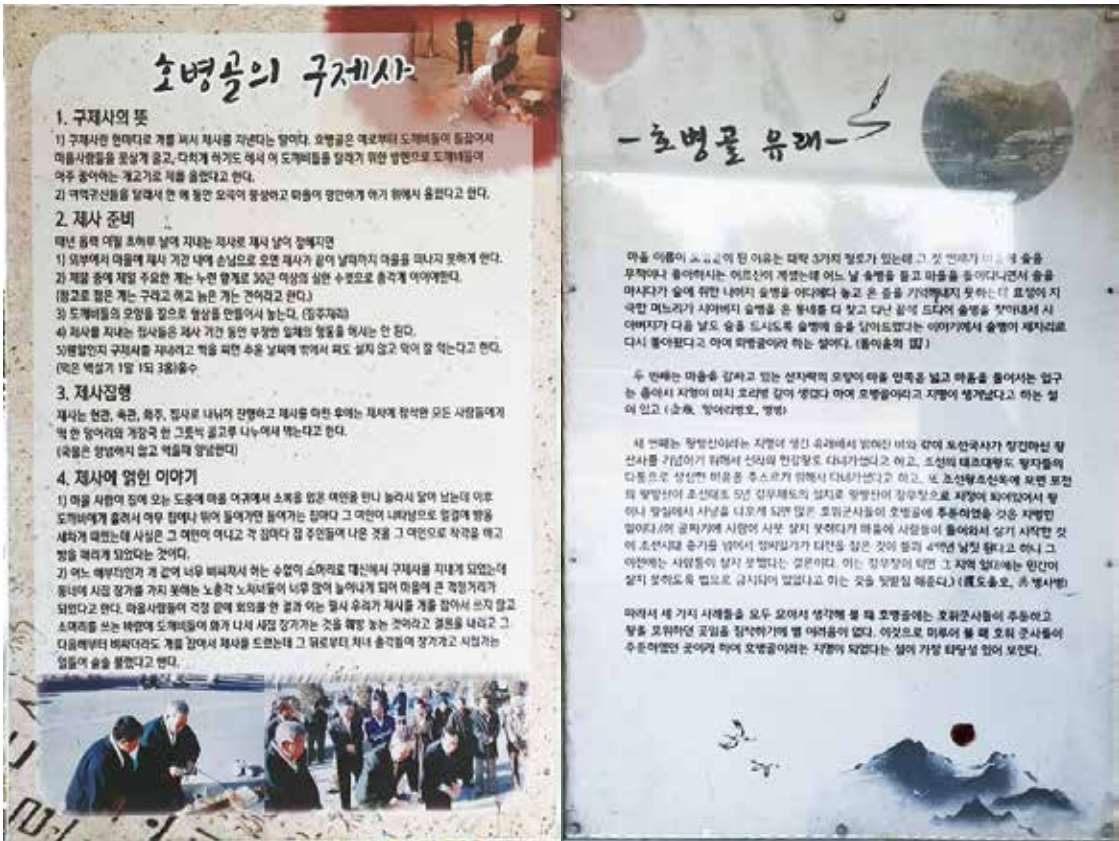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이가 들고 하늘로 보내드린 어르신도 있죠. 그분들의 삶 자체가 이 마을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깃거리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모두가 생각한 것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 사업을 잘 해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행복할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도 폐쇄되고 연세든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책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호병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주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모여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기도 하고 비전도 세우고 있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 마을문제 해결도 척척이다. 그래서일까.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좋아 2017년에는 공동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호병’이라는 옛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지명찾기 운동도 하고 있다. 마을지도를 그리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지명을 알리기 위한 마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다.

마을 발전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둔 포천시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에 포천 동대표로 1차 예선을 통과한 호병마을.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노후된 축사 냄새와 가축분뇨 침출수 감소에 포커스를 맞춰 주민 모두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닻나무 특화마을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이제 최종 본선만 남아있다. 호병마을 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보호 사업이기 때문에 호병마을 사람들은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했다. 또한 주민 모두가 환경에 관심도 많아졌다.



“포천의 명산 왕방산이 병풍처럼 뒤에 짝 펼쳐져 있고 정원 같은 호병지도 있으니 여기 사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요즘 도시로 다 떠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매일같이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곳의 모든 것을 남겨놓고 싶은데, 좋은 모습



이면 더 좋겠지요? 마을의 진입로 확장이나 안내소 설치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어요? 허허.”

내년에는 마을기업 또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특화사업을 하고 싶다는 호병마을. 커다란 왕방산 만큼이나 마음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병마을은 한번 오면 잊지 못할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넘치는 에너지를 보고 있자면 활력까지 덩으로 얻게 되는 이곳은 사람의 가치를 알고 마을의 소중함을 오늘도 멋지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함께 하는 호병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02

즐겁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는 박차고



한곳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 농업인 공동체
박차고

대표자명 이성숙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369-1
연 락 처 010-3258-1336

이름에 담긴 뜻 한곳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

주요사업

- 프리마켓
- 가을 팜파티(예정)

2021년 목표

- 모두가 신나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하기
- 프리마켓과 팜파티를 통해 각 농장의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성공하는 것



홍보채널

네이버 카페 : 박차고

연혁

- 2018년 강소농 기본교육, '뭉치스'로 모임시작, 강소농 대전 참가
- 2019년 포마켓 등 다양한 프리마켓 참여, 회원 다수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강소농 전문 교육, '박차고' 모임명과 회원 일부 변경
- 2020년 사과+아로니아잼 개발, 프리마켓 시작



알록달록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가 한데 어우러져 문화와 예술로 거리를 채우는 프리마켓. 요즘엔 미색 천막들이 쪽 늘어서 있으면 ‘프리마켓이네~!’ 하며 구경하러 가게 될 정도로 인지도도 인기도 올라갔다. 먹을거리부터 옷이며, 액세서리, 애견용품, 디퓨저 등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이 다양해 구경하기 좋고, 신나는 분위기만큼이나 진행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껏가를 즐겁게 만든다. 포천시의 농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 프리마켓을 이끌어가는 박차고. 박차고의 아지트 미리내농원에서 다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녀들을 찾아가 보았다.

“우리는 뭐든지 즐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차고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나게 나아가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한곳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고’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그녀들은 종자기능사나 유기농업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팔방미인들이다. 자신들이 농가에서 정성들여 키운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통해 농가 체험활동 외에도 냅킨아트라든지 석고방향제, 캔아트, 스트링아트처럼 문화활동 체험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8월 초 비내리는 어느 날, 코로나19 사태로 프리마켓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도 미리내농원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박차고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다함께 연 장터에서는 맛있는 부침개 냄새와 김치찌개기술센터에서 선물해준 옥수수를 따끈하게 찜먹으며 추억을 남겼다. 판매는 아주 미미했지만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하는 이성숙 대표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올해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을 팜파티를 개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인 농부의 화려한 수다.’ 타이틀만 들어도 너무 설레지 않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회원 모두가 신나고 재미있게 더불어 살기를 희망하는 박차고는 프리마켓 외에도 팜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다. 포천의 농산물을 체험하게 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금의 작은 활동들이 나중에는 큰 수확으로 다가오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녀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 덕분일 것이다.



포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무료체험이나 요리 경연대회도 열어 이웃과 소통하고 싶다는 박차고. 5년, 10년이 흐르면 서로 밥 사겠다고, 결국엔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대가 포천의 밝은 미래와 오버랩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포천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여성 농업인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단체입니다.

03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이 기댈 수 있는 나눔 공동체
새터나눔

대표자명 안태현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어룡길 43
연 락 처 010-8382-8865

이름에 담긴 뜻 북한 이탈 주민들과 국제결혼으로 새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의 새로운 터전으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

주요사업

- 세미나실과 제조 공방을 이용한 북한 음식, 특산물, 전통주 소개 행사(통일전망대 납품)
-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정착 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 마련
- 남북 언어 소통 프로그램
- 민속 소개 행사
- 새터나눔 포럼
- 새터나눔 포마켓
- 백두산 들쭉 재배 등 주말농장 생산물 나눔 행사
- 독거노인 돌봄
- 위기가정 관리 사업



2021년 목표

- 남과 북,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 부족과 소외감으로부터 치유받는 공동체 활동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음식, 특산물 등으로 경제적 자활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창업 기초 마련

연혁

- 2011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 장려상 수상
- 2011년 09월 27일 세계유기농대회 G 푸드쇼 전시
- 2011년 11월 28일 연합뉴스 <국회서 탈북 영농인 농산물 홍보> 출연
- 2012년 05월 22일 MBC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출연
- 2019년 05월 30일 새터나눔공동체 설립



북한에서 살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과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문화가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가다보면 생활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과 이웃이 되려면 그들이 받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남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새터나눔공동체는 이런 이유에서 탄생되었다.

“포천시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18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시대 남북 경협 거점도시인 포천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새터나눔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저희 공동체는 북한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구성원이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 전통이 다름

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러 문화가 모이고 어우러져 남다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음식 문화라든지 살던 곳에서 했던 직업을 활용해 이곳에서 살아갈 방향과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새터나눔공동체는 1,530평 정도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북한이나 타 국가의 특산물을 재배해 제조 공방에 모여 전통주를 비롯한 여러 요리들을 만들어 보곤 한다. 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각자 자신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마을과 통일전망대에서 판매도 하고 있다. 각각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소외감을 치유하기 위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문화의 다름이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새터나눔공동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전통주 제조를 주제로 MBC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에 방영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새터나눔공동체. 그들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38와인을 출시하기도 했고, 백두산 부엽지 고산지대에 자생하며 술이나 찜, 양갱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들쭉을 재배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공동체 회원들이 모여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직접 만든 음료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모두가 이곳 포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같이 끈끈한 정이 느껴진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곳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두가 이웃사촌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다문화 이웃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포천시민들 모두가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본보기가 돼야죠.”

포천이 북한과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일까. 새터나눔공동체는 새로운 문화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었다. 특히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진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다. 문화적,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새터나눔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게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04

위기를 상생으로 바꾼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경쟁자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변신한

산꽃마을공동체

대표자명	박광훈
구성원수	대표 외 14명
주 소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101
연 락 처	010-4364-3303

이름에 담긴 뜻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 등산로에 철쭉을 심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점점 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끼자는 마음으로 지음

주요사업

- 조각공원 조성
- 산길 꽃길 바꾸기 조성
- 공연 계획

2021년 목표 산정호수 조각공원내 꽃길 조성 및 작은 꽃밭 조성

연혁 2019년도 설립





포천 명소 한 가지를 말하라면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한 번 꼽은 산정호수를 꼽을 것이다.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 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어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불릴 정도로 더 없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결국 관광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마을 상가 상인들은 서로가 이웃이자 경쟁자였다고 한다. 경쟁자에서 공동체로 뭉친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장사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머물 수 있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마을기금을 이용해 등산로 입구에 철쭉꽃을 심고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꽃의 화사함과 더불어 사람들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래서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산정호수 안 조각공원 근처에서 지하수가 단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곳 모두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모

이기 시작했다고. 경쟁자였지만 같은 상황,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모여 그간의 섭섭함을 풀고 화해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상인들은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얘기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위기를 상생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각공원을 가꿔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에도 도전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죠.”

상인들이 모여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노력해 보자고 다짐했다. 중요했던 첫 걸음은 어스름한 새벽의 쌀쌀함을 맞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잡초 제거를 시작한 일이었다. 줄리고 찹고 힘들었지만 다들 열심히 해주었고 일회성으로 끝날지도 모르던 모임이 꾸준히 지속되어 지금의 산꽃마을 공동체가 되었다.

처음 공동체를 운영할 때는 여러 고비가 있었다고 했다. 아무래도 공동체 구성원의 연령대가 높고 특히 박광훈 대표의 연세가 연세이신지라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에 더딘 부분이 있었다. 서류와 행정적 절차는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고 포천시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주어 어





려움도 재미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산꽃마을공동체는 화합하고 가꿔나가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언제든 다룰 수 있고 언제든 화해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점점 마찰을 줄이는 노력, 거기서 시작된 더불어 삶의 힘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로서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십시일반 힘을 모아 산정호수 조각공원 내 꽃길과 작은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보다 책임감과 애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허허.”

산꽃마을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야 단점은 줄이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꽃마을공동체 내에서도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과 중재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삶의 지혜를 자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때로는 지친 마음을 힘겹게 끌고 와 쉴 수 있는 곳, 포천의 산정호수 속 산꽃마을공동체를 찾아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함께 사는 산정호수, 머무름이 있는 마을입니다.



05

어느 날,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나무로 시작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산정목공예

대표자명 이기영
구성원수 대표 외 17명
주 소 영북면 산정호수로 411번길 13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
연 락 처 010-6227-5725

이름에 담긴 뜻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공동체

주요사업

- 폐 나무, 일반 나무, 좋은 나무 등 나무보는 법과 보관, 관리하는 방법 배우기
- 나무로 가구나 필요한 물품 제작,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교육

2021년 목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사랑하며 아끼는 사람이 10명 늘어나는 것

연혁 2020년 설립





자연만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있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잔잔하게 다가오고, 계절마다 변하는 색색의 아름다움을 품은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어가라는 말과 함께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이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스쳐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이다. 기분 좋은 나무향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산정목공예. 산정목공예가 내뿜는 휴식의 향기 덕분에 오늘은 왠지 자연에 흠뻑 취해버릴 것 같았다.

“단지 자연이 좋고,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고건축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형님의 영향으로 나무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았고, 그러면서 나무와 인간 사이 깊은 철학이 생기게 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 둘, 알려주다가 이장님의 소개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이기영 대표.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공동체였지만 코로나 상황과 긴 장마로 모이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직접 나무를 보고 만지면서 폐 나무와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나무 보관이나 관리하는 법까지 몸소 체험해봐야 이해가 가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사람들에게 나무에 담긴 철학을 전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대표의 말씀을 들으니 나무에 담긴 철학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소재, 나무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다. 보통의 사람들은 화려한 결이나 색감에 끌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무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 부드럽고 강하지만 편안한 기분을 주는 나무를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니, 나무를 가꾸는 도구 하나하나도 직접 관리하고 보관하는 모습이 진정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저희는 아주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잖아요. 산정호수를 품고 있으니까. 이곳에선 사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들르신 분이려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죠. 제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많이 놀러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래오래 함께 누리고 싶은데 점점 훼손되기도 하고 기후변화도 생겨서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다음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리사이클을 떠올렸다고 한다. 가끔 회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폐 나무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이용해 각자가 필요한 가구나 도구를 만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보호도 되고 회원들도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폐 나무를 활용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산정목공예가 초석이 되어 다음세대에 더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바람처럼 산정호수는 더욱 아름답게 발전할 것 같았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졌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마주한 수많은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무심코 지나쳤던 꽃나무 하나와 들풀 하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산정목공예처럼 자연과 인간은 함께 공존해야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래본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산정목공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공동체임이 분명해 보였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06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더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The 공감

대표자명 정은미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4350번길 154-161
연 락 처 010-2009-4378

이름에 담긴 뜻 소통이 힘들어 지는 현대사회에서 관계와 소통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공동체와 공동체,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공감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 지음

주요사업 숲, 치유타발을 활용한 연간 프로그램 연구·개발

2021년 목표

- 좋은 콘텐츠를 연결하여 농가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
- 전시장이나 장터 진행
- 숲 활동이나 치유타발을 활용한 교육현장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연혁

- 2019년 7월 15일 The 공감 제정
- 2020년 2월 15일 The 공감 총회
- 2020년 4월 28일 The 공감 치유타발 조성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진행
- 2020년 6월 ~ 2020년 12월 자연상생 꿈의학교 협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 가질 시간도 아깝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참견하는 것은 더더욱 싫다는 요즘 혼족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소통보다는 단절이 더 어울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공동체와 공동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공간이 있다. 어느 날 문득, 깔깔거리며 보던 TV 세상이 즐겁지 않고, 핸드폰 속 연락처를 들여다보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진다던 푹, 푹, 푹... The 공감에게 말을 걸어보자.

“우리는 맘껏 수다 떨고 조금은 남들과 다르게 즐겨도 좋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통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제일 먼저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공감, 더 중요한 공감, The 공감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자연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지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파티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특히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정은미 대표. 10여명의 회원이 자일랜드 치유타밭에서 자연과 숲, 사람, 사랑, 삶 등을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새 다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자연을 활용한 숲 놀이, 미술퍼포먼스, 치유타밭을 활용한 자연 놀이, 식생활 개선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연생태 꿈의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고 자연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여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연결하고 농가들의 제품들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장터를 열고 싶다는 The 공감. 숲 활동이나 치유타밭을 활성화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현장의 연간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라는 바람도 갖고 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자라온 숲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그럼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숲속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뛰어 놀다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포천의 여러 명소나 여러 체험농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배치해 유아부터 아동,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성인까지 1년 동안 그림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면 관광홍보도 할 수 있고 소소한 즐길 거리도 될 것 같다는 The 공감. The 공감의 초록색 꿈들이 찬연하게 빛나길 소망해본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볼까요?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나, 너, 우리가 The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곳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7

지역에 활기를 만드는 우리는 꽃중년입니다



어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인 아름다운 중년들의
꽃외공동체

대표자명 송요원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17번길
연 락 처 010-2292-8939

이름에 담긴 뜻 포천시 가산면의 옛 지명인 '화산면(花山面)'의 순 우리말식 표기로 가산면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기 위한 공동체

주요사업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홈메이드 C&B(COFFEE, COOKIE & BREAD, BEVERAGE) 스쿨 프로그램 진행
- 중년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바리스타 자격증반 자체 운영)
- 지역 나눔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1년 목표

- 홈메이드 C&B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특화 상품 10종 개발 및 상품화
- 중년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바리스타 1급 자격증 6명 취득
- 지역 연계 활동 프로그램 계획수립



연혁

- 2020년 5월 01일 공동체 인증
- 2020년 6월 27일 첫 프로그램 시작(따뜻한 와인 만들기 체험)
- 2020년 8월 11일 가산면 공동체 네트워킹 첫 프로그램 참여
(궁말 다락방 공동체 주체 공동체 영화 상영 및 공동체 파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는 누구일까를 생각하면 바로 중년이 아닌가 싶다. 꽃중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 중년들은 젊고 활기차다.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며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식으로,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지역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모인 중년들의 공동체, 꽃피공동체를 찾아가 보았다.

“논어에 里仁爲美(어진 마을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글처럼 어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도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기둥은 바로 중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을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중년들이 중심이 되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으로 뭉쳐 공론의 장을 만들면서 꽃중년의 공동체, 꽃피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포천시 가산면의 옛 지명인 ‘화산면(花山面)’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꽃피’가 된다. 그래서 그런지 ‘꽃피’라는 단어가 참으로 예쁘다. 지역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이 남다른 가산면 지역의 중년들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름이다.

꽃피공동체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커피나 베이커리, 음료 등을 직접 만드는 홈메이드 C&B(COFFEE, COOKIE & BREAD, BEVERAGE)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다. 농촌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특화상품을 벌써 10종이나 개발하고 상품화했다고 한다.

중년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꽃피공동체는 올해엔 6명의 1급 바리스타 양성을 목표로 3개월째 열정을 불태우며, 지역연계 활동도 진행하면서 연대의 힘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 SNS 활용 기술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멋진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라니, 젊은 세대들 못지않은 얼리어답터들이 탄생할 것 같다. 또한 회원들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하여 함께 실행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건설하고 있다.



“하고 싶다는 욕구와 그것을 실현해가는 성취감을 느끼면 더욱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와 자식들을 보살펴야 하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중년들의 행복한 삶의 모델을 만들어 포천지역에 공유하여 많은 중년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마을기업을 만들고 포천시 관광두레 사업의 벤더로 참여하고 싶다는 꽃피공동체. 올해 공동체 인증을 받아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보면 꽃피공동체의 내공을 심히 알 수 있다. 어쩌면 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운명처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탄생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다져온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마을의 전통을 살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달려갈 꽃중년의 열정, 꽃피공동체의 내일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며 지역 중년의 행복한 삶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꽃피마을공동체입니다.



08

우리는 포천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될 겁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누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도전

오성과 한음

대표자명	이경옥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솔모루로 81번길 27
연 락 처	010-7137-7719

이름에 담긴 뜻 오성과 한음처럼 포천을 대표하는 강사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주요사업 포천의 노래 및 체조 보급

2021년 목표 포천의 노래 및 체조완성

홍보채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X6owDNERFTjlz0Hrwm_3A/featured

연혁

- 2019. 11. 창립멤버모임
- 2020. 04. 오성과 한음 단체 등록





‘오성과 한음’.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조선 선조 때 명신으로,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말하지만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장난이 심하고 재치가 뛰어나 수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에게는 오성과 한음이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포천 출신으로 함께 서당에 다녔으며 벼슬길에 나와서도 뜻을 같이해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오성과 한음은 현재 포천의 마스코트가 되어 캐리커처와 만화가 유명하다. 2020년 현재, 포천의 마스코트를 꿈꾸며 지역민의 건강과 홍보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흥미로운 마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시니어 운동 강사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 인지, 정서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한 만능 엔터테이너 강사들이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포천시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다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지역의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강사들이 모여 포천시민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오성과 한음. 포천의 노래를 만들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 체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

포천은 농업지역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시니어 건강체조를 제작해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또한 챌린지 사업을 통해 포천시 홍보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들이다.

특히 치매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포천의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체조영상과 포천시 노래를 만들며 생기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머리를 맞대는 오성과 한음은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쉽게 동작이 크고 트로트와 아이돌 노래에 맞춰 체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조영상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지역 사회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치매예방 뿐 아니라 근력강화 운동, 면역력 강화 운동, 낙상 예방 운동 등 전문적인 건강 운동도 제작하는 오성과 한음.



공동체를 설립하면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탓에 다양한 홍보 방식을 접목하려다보니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한다. 서툰 영상촬영과 편집, 예산의 한계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던 촬영장소를 다소 아쉬워했다. 한번은 체조영상을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와서 모든 강사님들이 힘들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덕에 다들 즐겁게 작업을 마쳤





고 너무나도 값진 영상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포천공설운동장에서 포천 체조를 함께하고 싶어요. 포천만의 것, 포천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동체와 함께 교류하며 체조영상도 공유하고 함께 홍보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포천을 만들어야죠.”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포천 시민들의 즐거운 일상을 꿈꾸고 있는 오성과 한음. 그들이 꿈꾸는 내일의 모습은 그 어떤 신나는 노래보다, 멋진 춤사위보다 포천의 고유한 문화로 시민들 마음을 흠칠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어르신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강사들

09

이젠 핸드폰으로 손주와 대화합니다



정서적 행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배움 공동체

정서개선배움터

대표자명	이준학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선단동 838-13번지(송선로 268-57)
연 락 처	010-7506-9135

이름에 담긴 뜻 우리 자신을 이루는 합리성과 감수성(정서적 부분)의 균형있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주요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폰 활용과 토탈공예

2021년 목표

- 마을 정체성 강화 / 역사 문화 계승과 발전 /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마을 정비 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으로 정서적 소통과 나눔, 협동, 연대의 가치 아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의 터를 만들고자 함

홍보채널 카카오톡 단톡방 (정서개선을 배움터 토탈공예, 핸드폰 활용 지도사반)



연혁

- 2011년 4월 선단동어린이작은도서관 개관
- 2018년 2월 선단동어린이작은도서관 폐관
- 2019년 2월 경기도 폐도서관 공간리모델링 사업 선정
- 2019년 3월 정서개선을 위한 배움터 설립
- 2019년 3월 경기꿈의학교 음악을 통한 정서개선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 2019년 5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일본어, 컴퓨터 강좌 운영
- 2019년 6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클레이 강좌 운영
- 2020년 7월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을 위한 핸드폰 활용 및 토탈 공예 운영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로인해 어르신들은 점점 정보에서 소외되어 가는 현실 역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어르신들을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있다. 바로 정서개선배움터.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느긋하지만 꼼꼼히 챙기는 이준학 대표를 마주해 보았다.

“몇 해 전부터 지역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정상 2018년에 폐관을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이 있던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마침 경기도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죠.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마을과 지역에 도움 되는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협동하며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협동하며 행복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시작한 것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친숙해지고, 사용법을 배워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오는 전화 받고 사진 찍는 것만 알면 된다 하였던 분들도 정서개선배움터 식구들의 열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용법을 익히면서 신기해 하셨다 한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젠 스마트폰으로 정보도 찾고 핸드폰 활용 지도사반 단톡방을 개설하여 의견도 교환하며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토탈공예 배움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자고 권유할 때 처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핸드폰활용 수업이 무엇인지, 토탈공예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사업을 진행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점차 공동체의식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지금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10명 내외의 모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역주민에게 이 활동이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먼저 말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도 많고, 반대로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도 성장해야 하니까요. 아직 저부터도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업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포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가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모범적이고 닦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경쟁을 통해 최고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다함께 잘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임을 알리고 실천하는 정서개선배움터. ‘나’라는 공간으로부터 나와서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작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로 정서개선배움터와의 만남은 끝이 났다. 따뜻한 소통의 지역 포천에서 함께 살아갈 이 공동체와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이 함께하길 희망해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소통과 나눔,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민주주의 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10

똑딱똑딱, 함께 만들어볼까요?



귀촌인과 더불어 행복을 가꾸는

스마트팜정원랜드

대표자명 하현영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652번지
연 락 처 010-4310-9920

이름에 담긴 뜻 가정에서 기르는 버섯재배 기술을 습득과 내 손으로 정원 가꾸기를 배워서 도시에서 포천 귀농귀촌 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공동체

주요사업

- 스마트팜 버섯재배를 위한 기초단계와 내손으로 버섯재배 기술이전
- 내 손으로 정원 가꾸기 및 정원 관리

2021년 목표 가정에서 직접 재배하는 버섯기술 이전과 내 손으로 꽃과 식물관리 요령, 기술 습득

홍보채널 서울 사무소 :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0 라마다 서울 호텔 별관 옹기아트홀
(다양한 공연 주관 및 개최)

연혁 2020년 지역 공동체 시작





무언가를 가꾸고 키워낸다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곳에 뿌리내린다는 것 역시 그곳에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만 한다. 한겨울에도 차디찬 바람을 이겨내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이 눈부시듯,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도움을 주는 동백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스마트팜정원랜드 공동체처럼 도시를 떠나 포천시에서 정착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따듯한 온기를 같이 느껴보도록 하자.

“처음 시작은 ‘내 손으로 가꾸어서 모두의 꿈을 이루자.’였습니다. 큰 맘 먹고 도시에서 포천으로 이주했지만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한 기존 마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소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좀 더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했던 분들은 당연히 적응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기존 동네 주민들과 소통이 단절되어 다시 도시로 가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서 귀촌하신 분들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다, 우리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귀촌인들에게 정원만들기라든가 정원가꾸기, 버섯재배 노하우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이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상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마트팜정원랜드를 설립했다고 했다. 기존 주민들과 신규 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이 되고 수익창출을 위한 동기도 있었던 스마트팜정원랜드.

“한번은 마당과 농장 하우스가 정리가 안 되어 도시에 있는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고민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추석에 가족들을 초대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마치 내가 집들이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합니다.”

스마트팜정원랜드는 내 손으로 정원도 가꾸고, 이것저것 작은 가구를 직접 만들어 건강한 집에 행복을 꾸미는 즐거움을 키우면서 스마트팜으로 가정에서 버섯까지 재배해 수익도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살





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올해 긴 여름 장마와 폭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침수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했다. 비록 침수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다 같이 마을을 청소하면서 아픔을 달래고 우리는 함께라는 소속감도 쌓으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스마트팜정원랜드는 강남에 서울 사무소가 있어서 다른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활동도 알리고 여러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통을 중요시 하는 하현영 대표는 포천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목표를 정해 도전하는 것을 적극 추천했다. 어렵게 도시를 떠나 포천에 정착하기로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취와 원주민들과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회원들에게 가정에서 버섯 재배하는 기술을 알려주고 내 손으로 꽃과 식물 관리 요령도 교육하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어렵긴 하지만 SNS와 모바일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의 열정을 보면 추워지는 날씨에도 화사하게 피어날 동백꽃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11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포천의 푸른 꿈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채워갈 '우리 함께' 공동체
위더스

대표자명 이종윤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33-3 라인뮤직 실용음악학원
연 락 처 (031)532-5451

이름에 담긴 뜻 With Us(위더스)라는 이름으로, 단어 그대로 '우리 함께'라는 뜻

주요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비대면 청소년 버스킹

2021년 목표 포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예술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포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틀이라도 만드는 것

연혁 2020년 위더스 설립





처음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 누구나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 함께’ 꿈을 이뤄가자는 마음이 모여 시작된 위더스(With Us). 대표를 제외한 모든 팀원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더스는 운영자금이 부족해 처음 만났던 학원을 아지트 삼아 다른 시각으로 포천시를 바라보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포천시의 내일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며 청소년 문화예술을 키우고 있는 위더스의 꿈에 한 발짝 들어가 보았다.

“현재 팀원으로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 버스킹이나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영상과 자료를 자주 찾아 볼 정도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포천에는 왜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문화예술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포천의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모여 위더스가 결성된 거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모든 팀원이 모인 순간, 공동체를 설립하고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이종윤 대표. 또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기뻐했다고 한다. 포천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단체가 없어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기고 싶은 청소년은 외부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꿈을 들어 드림’은 청소년 문화예술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포천의 청년과 청소년 아티스트를 활용한 문화예술 버스킹이다. 공연 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여 비대면이지만 포천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합류해서 버스킹이나 공연, 축제를 포천에서 열고 공동체도 키워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서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청소년이 주축인 만큼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포천시를 바라보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포천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저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기획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열정으로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열정이 없고 꿈과 바람만 있었다면 꿈을 향한 시도는 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기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소년 지원 사업을 늘리고 그들의 꿈에 많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종윤 대표. 시간이 흐르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더스의 ‘우리 함께’ 열정은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갈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포천에 있지 않았던 청소년 문화예술을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의 문화예술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12

풍부한 아이디어로 자연의 고마움과 세상을 표현하겠습니다



선후배로 뭉쳐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픈
필름메이커

대표자명 한성규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227 204동 1003호
연 락 처 010-9086-2237

이름에 담긴 뜻 영화 필름이라는 단어와 ~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영상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

주요사업 포천시에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모습과 오염된 모습 그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회를 열어 포천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자연환경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음

2021년 목표 필름메이커가 만든 자연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포천시민들이 보고 환경을 지키는 것에 참여하는 것

연혁 2020년 필름메이커 설립





흰칠한 키에 활기찬 발걸음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독 리더십이 있고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 한상규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학교 선후배로 만나 서로의 관심사와 꿈이 영상미디어 분야라는 공통점과 함께 포천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기에 누구보다 포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청년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해 알리고 싶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점점 오염되는 것이 안타까워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필름메이커다.

“처음에는 취미로 학창시절 친분이 있던 선후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편집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름메이커 구성원들은 모두가 청년이고, 청소년이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로우며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신세대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감각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 하지만 영상장비나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하루하루 저렴하게 장비를 빌려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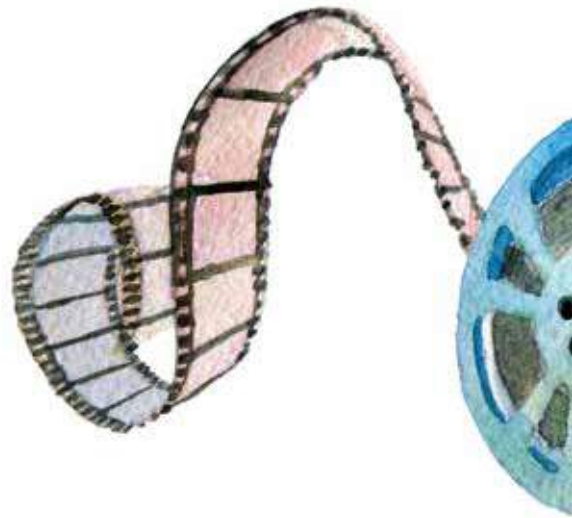




‘신은 늘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하고 응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바빠서 자연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현실.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어도 자연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만큼 값진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필름메이커다.

“언젠가 전시회를 열거예요. 포천의 훼손된 자연환경과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그로인해 벌어질 일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저희만의 방법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모두의 꿈이자 목표예요.”

드론과 관련된 공동체가 있어 협업을 통해 같이 촬영하고 함께 영상을 만들어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싶다는 필름메이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필름메이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또한 필름메이커 덕분에 자연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될 거라 생각한다.

포천을 변화시키는 청년이 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는 필름메이커. 그들의 꿈을 들으니 분명 포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청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의 힘찬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우리는 '포천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입니다.

13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교육 공동체
민스교육

대표자명 김영복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왕방로 258 2층
연 락 처 010-2324-2147

이름에 담긴 뜻 Mean, 의미 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전하자는 뜻

주요사업 오케스트라 봉사 공연

2021년 목표 5곡에서 10곡 정도를 함께 완성하여 위문 공연과 연주회를 하는 것

홍보채널 '포천 민스 오케스트라'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 준비 중

연혁 2020년 민스교육 설립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라는 하나의 큰 악기를 연주한다. 혼밥, 혼술이 대중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지금, 각자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찌면 혼자가 편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할지도 모른다.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민스교육 공동체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음악을 각기 다른 악기로 연주한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 만든 공동체지만 오케스트라로 시작했기에 먼저 탄탄한 하모니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2020년에 설립되어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성원 한명 한명의 재능과 열정이 대단하다.

“과거에는 삶이 바빠서, 혹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뭘까 라는 질문도 못 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직업 외에도 잘하고 싶은 것들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배움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호흡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연주할 파트만이 아닌 전체 악보를 봐야하는 오케스트라는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렵다. 내 파트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연습이 끝나면 하모니를 위해 또다시 연습에 들어간다. 협동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은 이들의 땀 흘린 연습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민스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6월부터 준비하면서 음악을 처음 접하는 구성원도 있고 오랜 경력을 가진 구성원도 있어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모두의 선율이 조금씩 조화를 이뤄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될 때 보람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반월아트홀에서 진행되는 포천 시민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고 싶다는 민스교육공동체. 실력을 더 높인다면 고양시 Accel 오케스트라 고양 현악 합주단과 같은 타 지역 단체와 함께 공연하면서 포천시의 민스교육공동체를 널리 알릴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도 품어본다. 지금은 음악으로 시작하지만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될 거라 한다.

“시작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맥을 잡아야할지 막막했고, 구성원들과 시간 맞추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들 양보하고 배려하다보니 해결책을 찾았죠. 앞으로 2중주, 4중주에도 도전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요. 또한 오케스트라 봉사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있고, 포천시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겠습니다.”

포천시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운영 중인데 이 공동체들이 다함께 한자리에 모여 연주와 공연도 하고 각 공동체의 활동한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영복 대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민스교육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울려 더욱 빛을 발했으면 하는 포부도 함께했다. 교육이 미래의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스교육 공동체가 연주할 아름다운 교육 하모니를 기대해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함께 꿈꾸는 우리, 음악으로 행복한 오케스트라입니다.

14

우리가 지나간 곳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플로깅 모임
헤이, 포천031

대표자명 김재환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 포천시 중앙로 92-11(카페반월)
연 락 처 010-9354-3029

이름에 담긴 뜻 포천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주요사업

- 플로깅 문화 조성을 위한 런닝과 환경미화(쓰레기 줍기)
- 포천천 수질 정화를 위한 EM공 제작 및 활용
- 런닝 구간 및 우측 보행 표기를 통한 안전한 런닝 문화 조성
- 건강하고 올바른 런닝을 위한 강좌

2021년 목표

- 플로깅 문화 조성을 통해서 누구나 뛰고 싶은 포천천 런닝 코스 만들기
- 쓰레기를 없는 포천천 만들기
- 건강한 삶과 워라벨 속의 삶에서 가치 찾기

홍보채널

<https://open.kakao.com/o/gYjn8xPb>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연혁

- 2019년 런닝모임 시작(청년 4명)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 2020년 런닝과 함께 플로깅 문화조성에 대한 공동체 회의
공동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포천시공동체지원사업 선정
'헤이,포천031' 공식 발대식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플로깅. 단어도 낯설고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자세와 비슷하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는 플로깅. 낯설고 생소하지만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플로깅 모임 공동체가 포천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건강한 청년들이 저녁에 모여 환경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진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런닝 활동으로 공동체가 구성되었어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니 운동하는 장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생겼죠. 회의를 하다가 ‘플로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생소하지만 뜻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동하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깨끗이

만들면 포천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먼 미래도 함께 내다봤고요. 포천천에서 누구든지 런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플로깅을 하고 수요일은 카페반월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플로깅을 통한 환경미화 뿐만 아니라 포천천의 수질 정화를 위해 EM공(Effective Micro-organisms, 하천이나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로운 미생물로 이루어진 공)도 만든다. 황토와 발효액을 섞어서 1~2주 정도 말려주면 흰색 털들이 송송 생겨나는데 포천천에 직접 EM공을 던지며 더 깨끗한 하천이 되기를 기대하곤 한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런닝을 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의 구간표시와 우측보행 표기를 하고, 올바른 달리기를 위한 런닝 강좌도 진행한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가고 있지만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헤이,포천031. 공동체에서 이루기 힘든 것들은 지자체가 담당해주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채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청년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지역사회를 바라는 헤이,포천031의 마음은 포천 시민 전체를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관심과 참여가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을 때 공동체는 굴러갈 수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후대에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헤이,포천031은





꾸준히 성장해가고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이,포천031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포천을 무척 사랑한다. 그래서일까? 소소한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헤이,포천031.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소소하게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소박하게 그려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헤이,포천031이 주관하고, 더 나아가 포천시장배 포천천 플로깅 대회까지도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청년들이 모였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포천시민 모두가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날이 곧 찾아올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포천의 청년들은 지역과 환경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15

요즘 세상에 중요한 화두가 바로 소통입니다



배려와 양보로 마을의 행복을 키우는
소통하는 금주3리

대표자명 유재춘
구성원수 마을사람들 전체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533번길 5-4
연 락 처 010-6219-6527

이름에 담긴 뜻 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금주3리

주요사업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함

2021년 목표 마을이 1반, 2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반 마을을 가꾸고자 함

연혁

- 2017년 경기도 따복사업 실행함
- 2018년 포천시 공동체 지원사업 실행함 (이,미용 배우기 프로그램 진행)





일상의 풍경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비슷하다. 농촌의 경우 새벽부터 부지런히 논과 밭, 과수원, 축사 등으로 다니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을길에 사람의 발걸음이 한적해지는 때가 온다. 그때 주민들은 각자 집안일을 하거나 삼삼오오 마을회관에 모여 마을 일을 논의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는 곳이 있다. 주민 간 불화와 소통 부재를 없애고 친목을 돈독히 하고자 만들어진 공동체, 바로 ‘소통하는 금주3리’다.

“마을마다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는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은 일에도 양보보다는 대립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수군거리고 오해를 키우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몇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는 뜻을 모았고, 2016년 가을에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재춘 대표는 마을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무작정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함께 배우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먼저 추진한 프로그램은 바로 이·미용 봉사였다. 중장년부터 노년층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커





트나 염색, 파마 같은 미용기술이었고, 또한 봉사자와 수혜자가 일대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마을 주민 간 사이가 좋아지면서 오해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화목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을 분위기가 좋아지니 모든 면에서 잡음이 없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공동체가 추진하는 것은 마을 공동 수익사업과 마을벽화사업, 화단조성으로 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 건의해 건물 한 동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펼쳐 나갈지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더불어 리더나 실무자만이 아닌 공동체 일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자립하는 길이니깐요.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체 사례를 참고하면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소통하는 금주3리는 영중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에서 공동체로서는 유일하게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행사가 끝난 후 구성원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저마다 자존감과 자



부심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체가 내실을 견고히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교류하고 활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순간이었다. 유 대표는 각 구성원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지금 활동하는 장년층이 10년 후에는 노년을 맞이할 텐데, 행복한 마을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그때쯤 가가호호 웃음소리가 지금보다 몇 십 배는 커지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

또한 서울 근교에서 자연이 아름답고 개발 가능성이 많은 도시로 포천을 꼽는데, 사업 터전을 찾는 청년에게도,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노년층에게도 포천은 앞으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포천을 꿈꾸며 열심히 소통하는 금주3리 구성원들의 땀방울이 값진 결실을 맺길 희망해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주민 간 불화와 소통 부재를 없애고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16

우리 지역 어르신은 우리가 보살핍니다



조용하지만 따스한 사랑을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달맞이꽃사랑봉사단

대표자명 김희자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875
연 락 처 (031)533-9087

이름에 담긴 뜻 '말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의 이름처럼 조용하게 알찬 사랑을 실천하자는 뜻

주요사업

- 취약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맛있는 동행,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
- 취약 어르신 영양죽 및 도시락 배달사업
- 생신날 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선물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2021년 목표 어르신과 봉사원과의 일대일 결연으로 촘촘하고 안전한 울타리 구축

홍보채널

- 관인농협 홈페이지(kinh.nonghyup.com)
- 관인노인복지센터(블로그)
- 달맞이꽃 사랑봉사단 밴드



연혁

- 2007년 2007년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시의회 의장상 표창
- 2014년 MBC RADIO 여성시대 방송(사연 방송)
- 201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 2018년 포천시 지역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
- 2019년 달맞이꽃 사랑봉사단 단장 이·취임식
김장공모사업 선정
- 2020년 달맞이꽃 사랑봉사단 최정주 전 단장 경기도지사 표창
포천시 지역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
- 2011년 ~ 2020년 현재 마을 행사(경로잔치 등)에 봉사원 파견



‘말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간직한 달맞이꽃. 작은 선행도 과대 포장되는 현실에서 조용하지만 알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녀들은 정말로 포천의 달맞이꽃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곤란할 만큼 아픔과 외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무척이나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은 우리가 보살피자는 의견들이 모여 그동안 관인농협에서 활동하던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을 주축으로 달맞이꽃사랑봉사단의 사랑이 포천시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부녀회와 농가주부모임의 회원들은 이미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부모님 친구나 이웃이기 때문에 한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죠. “관인면에 살아서 행복하고 다행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때때로 보러오기도 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관인면의 허브’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맛있는 동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보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 4~5가지를 매주 수요일마다 80여분에게 배달하고 있다. 배달뿐만 아니라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벗도 되어준다. 또한 병원에서 막 퇴원한 어르신이나 저작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매주 영양죽과 도시락을 번갈아 갖다 드리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달맞이꽃사랑봉사단은 이런 활동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신날에 홀로 외롭게 보낼지도 모를 어르신을 찾아가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주며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있다. 정말이지 딸처럼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녀들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녀들이지만 남다른 고충도 있다.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시설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의 가스시설과 주방용기로는 한계가 있고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도 많다고 했다. 또한 조리를 한 후 포





장을 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안전한 기구가 필요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공간조성사업 공모가 있다면 지원해볼 생각이란다.

“비교적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제공한다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활력이 생겨 더 건강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싶어요. 각 경로당 회장님과 주민자치센터 등 이 사업에 공감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체와 논의하여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공동체 구성은 공모사업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공동체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희자 대표.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 집단으로, 요즘처럼 경쟁적인 삶이 더 치열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커진다고 말한다. 또한 면대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공동체들의 활동이 소중하게 빛날 거라는 말에 절로 수긍이 간다. 어르신과 달맞이꽃사랑봉사단의 일대일 결연으로 촘촘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그녀들의 활동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욱 소중하고 빛나는 사랑을 전합니다.



17

혹시,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블루베리의 푸름처럼 푸른 꿈을 영글고 있는
푸른꿈블루베리마을

대표자명 송기태
구성원수 대표 외 14명
주 소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길 12
연 락 처 010-4364-6368

이름에 담긴 뜻 장래희망이 직업을 갖는 것이라는 장애인들에게 블루베리를 재배하며
푸른 꿈을 이뤄가는 마을

주요사업

- 2020년 선진지 견학
- 신품종 블루베리 300주 화분 및 재배로 규모 증축을 계획 중

2021년 목표

- 신품종 블루베리 묘목 재배 확대
- 1,000여 평 부지에 300주 식재 예정

홍보채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04194194582>



연혁

- 2015년 블루베리 묘목 150주 식재 시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 2016년 블루베리 묘목 100주 식재
블루베리 삽목 3000주 재배
포천시의회와 함께 블루베리 따기 체험 및 판매
- 2017년 포천시 산림조합 나무시장 묘목 첫 판매
우리방송(딜라이브) 방송국 출연
- 2018년 포천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 체결 후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묘목 판매 시작
따복공동체 사업
- 2020년 포천시 지역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선정



따뜻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 블루베리가 익기 딱 좋은 포천시 신북면은 달콤한 블루베리 향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푸른꿈블루베리마을’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누가 중증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함께 어우러져 같은 목표와 꿈을 키워가고 있는 푸른꿈블루베리마을. 중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큰 이곳은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포천의 자연환경을 톡톡하게 이용해 블루베리밭을 만들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비장애인도 소속되어 있어 함께 노력하며 꿈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성장한다면 완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바뀌서 생각해보면 장애인의 시선에서 비장애인은 ‘나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르지 않거든요. 푸른꿈블루베리마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영글어가는 새로운 직업 재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삼목 작업과 묘목 분갈이를 해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판매하고, 여름에 수확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푸른꿈블루베리마을. 가을과 겨울에는 다음 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낙엽을 깔고 땅이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이렇듯 블루베리를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바쁘게 흘러간다. 푸른꿈블루베리마을에 기술을 지도해 주신 분부터 판매 루트를 열어준 곳, 수확시기에 일손을 도와주신 분들까지, 그들의 고마움을 잘 알기에 푸른꿈블루베리마을 구성원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요즘 푸른꿈블루베리마을은 블루베리 신품종 덕분에 다들 들뜬 모습이다. 이 품종은 피트모스 등 조건만 잘 맞으면 멋진 분재로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블루베리 열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요즘이다.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푸른꿈블루베리마을은 장애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





니다. 점차 장애인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푸른꿈블루베리마을같은 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함께 성장하고 돕는 상생 네트워크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비옥한 포천의 땅에서 자연을 벗 삼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여 공동체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함께하는 공동체’ 장애인과 함께 푸른 꿈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18

남다른 감성이 묻어나는 이곳에서 인생을 치유해봅시다



느리지만 여유롭게 배움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이어가는
감성마을한마당

대표자명 박광복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754번길 70-25
연 락 처 (031)534-0819

이름에 담긴 뜻 감성 있는 농촌체험의 경험과 치유농업의 발전으로 관습농업의 탈피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

주요사업

- 2016년 연정천 살리기 프로젝트1
- 2017년 연정천 살리기 프로젝트2
- 2019년 연정천 살리기와 하늘길 이어가기

2021년 목표 치유의숲 만들기



홍보채널

유튜브 서예마을
홈페이지 www.nurilove.co.kr

연혁

- 2015년 발족
- 2018년 제 1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NHK 농민방송, KBS 6시 내고향 소개
- 2019년 '들녘 가꾸기 경진대회' 예선 통과



곰취와 뽕나무, 아로니아와 같이 몸에 좋은 식물이 잘 자라는 관인면 해발 185m 준고랭지에 가면 오로지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나이 든 농부들을 만날 수 있다. 노익장이 남다른 이들은 농사 외에 마을 환경과 삶의 질에 관심이 커서 다같이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노인 중심 공동체 ‘감성마을 한마당’이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가 인기있는 요즘, 시골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전통적인 방식의 서예와 현대의 캘리그래피 기법을 접목해 글씨를 창조하는 활동을 즐긴다니 꽤나 흥미롭다. 이름에서부터 남다른 감성이 듬뿍 묻어나는 감성마을한마당을 만나 보았다.

“일본여행 중에 마을기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더군요. 그러다가 농협대학에서 마을기업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풍습 중 하나인 품앗이와 두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배움이었는데,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알고 공부의 필요를 느껴서 시작하는 배움, 배움의 때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예마을로 더 유명한 이곳은 2017년 8월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지로 지정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시가 흐르는 마을’로 가꾸기 위해 저마다 소양을 쌓고 교양을 갖추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전래놀이지도, 꽃차 소믈리에,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후 주민 스스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서예마을에 온 외지인들은 서예를 배우고, 시를 쓰고 낭독하며,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창작하는 수준 높은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풍부한 감성을 채우고 진정한 힐링을 맞볼 수 있다.

한편 이 마을은 팜스테이로서 기반이 잘 닦인 곳이기도 하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정 깊은 농촌을 느끼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지역 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도 있다. 시골벽적인 휴양지보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학습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감성마을한마당이 있는 관인면으로 힐링여행을 추천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감성마을한마당이 처음부터 잘 운영됐던 것은 아니다.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이 지역의 특산품의 특징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알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 한번은 대진대





학교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올까?’ 걱정이 앞섰다. 정말이지 몇 주를 아침마다 고지 방송을 했을 정도로 처음엔 망고생도 심했다. 하지만 요즘은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들 알아서 온다.

“치유농업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싶고요. 쌀을 가지고 가공품도 만들 예정입니다. 닥터피쉬나 허브 물, 장미터널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그 마을에 가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리지만 여유로운 그런 마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바로 혈관과 같다고 한다.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혈관처럼 큰 줄기를 만들고 길이 생기면 어찌됐든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나이드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운영해 나가서 큰 줄기가 생긴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 믿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포천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관광과 결합하고 정신적 치유효과를 통한 치유농업마을로 발전해 가기 위해 감성마을한마당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순수한 기능을 몸소 배우고 겪고 깨닫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사람중심, 생명중심, 품앗이 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하는 감성마을입니다.

19

마을 전체가 정원이 되는 걸 그려보세요



아름다운 뽕나무 정원이 있는 마을

뽕따는사람들

대표자명 서영숙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6-26
연 락 처 대표자 : 010-8735-7282 / 운영관리자 : 010-8983-7688

이름에 담긴 뜻 어디서든 잘 자라는 뽕나무를 마을 곳곳에 심어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주요사업 정원 만들기 사업

2021년 목표

- 마을 유휴지에 정원 만들기
- 삶 속에 학습이 있고 학습 속에 삶이 있는 마을



홍보채널

<http://www.교동장독대마을.com>
<https://www.facebook.com/jangdok5211/>
<https://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12307688>
<https://www.facebook.com/jangdok5211/?ref=bookmarks>
<https://www.instagram.com/gyodongjangdokdae/>

연혁

- 2018년에 결성하여 팜파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뽕나무는 예로부터 활용 가치가 높아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 뽕나무 잎으로 누에를 키우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디 열매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풍부해 그냥 따서 먹거나 술을 담그기도 하고 잼을 만들기도 한다. 백발의 머리를 검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 건강에도 좋은 열매다. 무엇보다 버릴 것이 없는 뽕나무는 특히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를 뽕나무로 심어 마을 주변을 가꾸다보니 ‘뽕따는사람들’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한다. 오늘도 인기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뽕따는 사람들과 마주해 보았다.

“우리는 뽕나무로 소규모 정원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공유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엔 나무에 대해 아는 전문가가 없어서 교육을 받아가며 공부했고, ‘정원관리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을 전문적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이름은 교동장독대마을인데 마을 공동체 중에서 무척 유명하죠. 이 마을을 아름다운 정원

이 있는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만들고 있는데, 마을 전체가 정원이 되는 걸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을 주민들 모두가 ‘뽕따는사람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한탄강이 흐르고 지장산의 산세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마을 전체가 정원인 듯한 생각이 든다. 농가마다 정원을 이루고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닿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곳 장독대마을의 대표는 땅에 다른 것을 심지 않고 뽕나무를 심었다. 뽕나무에서 나는 누에와 뽕잎, 그리고 오디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마을의 수익원을 내기 위해서였다. 또한 마을을 정원처럼 꾸미는 데에도 나무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멀베리 카페에는 오디와 뽕잎으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다. 오디청, 오디잼, 오디에이드, 오디라떼, 뽕잎가루, 뽕잎인절미... 그 중에서 뽕잎인절미의 인기는 최고란다. 오디나 뽕잎으로 만든 제품을 고르면 젊은 청년이 맛있게 빵을 굽고 음료를 내어준다. 뽕따는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늘 느끼고 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감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뽕따는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도 늘 품는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 바뀌고 있어요. 체험객도 없고 참 다들 힘든 상황이지요. 하지만 내부에 정비하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열심히 나무를 심고 정





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부도 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공동체들도 많이 배워가며 발전해간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같이 가는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이 사는 이웃에게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공동체 대표의 말대로 이 마을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삶이 자연스럽다.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가는 뽕따는사람들 공동체는 직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워크숍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수익 창출보다는 마음을 주는 공동체이기에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한 뽕따는사람들.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며 더욱 아름다워져 있을 그 모습을 기대하는 이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마을 언저리부터 상큼한 오디의 향기가 발길을 멈추게 하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마주할 그날이 벌써부터 우리를 흥분시키게 한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같이 가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20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마을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종합선물세트처럼 포천시민을 사로잡을
포천여성합창단

대표자명 이광숙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04 나동 103호 물뽕교육공동체
연 락 처 010-8704-6613

이름에 담긴 뜻 포천을 대표하는 여성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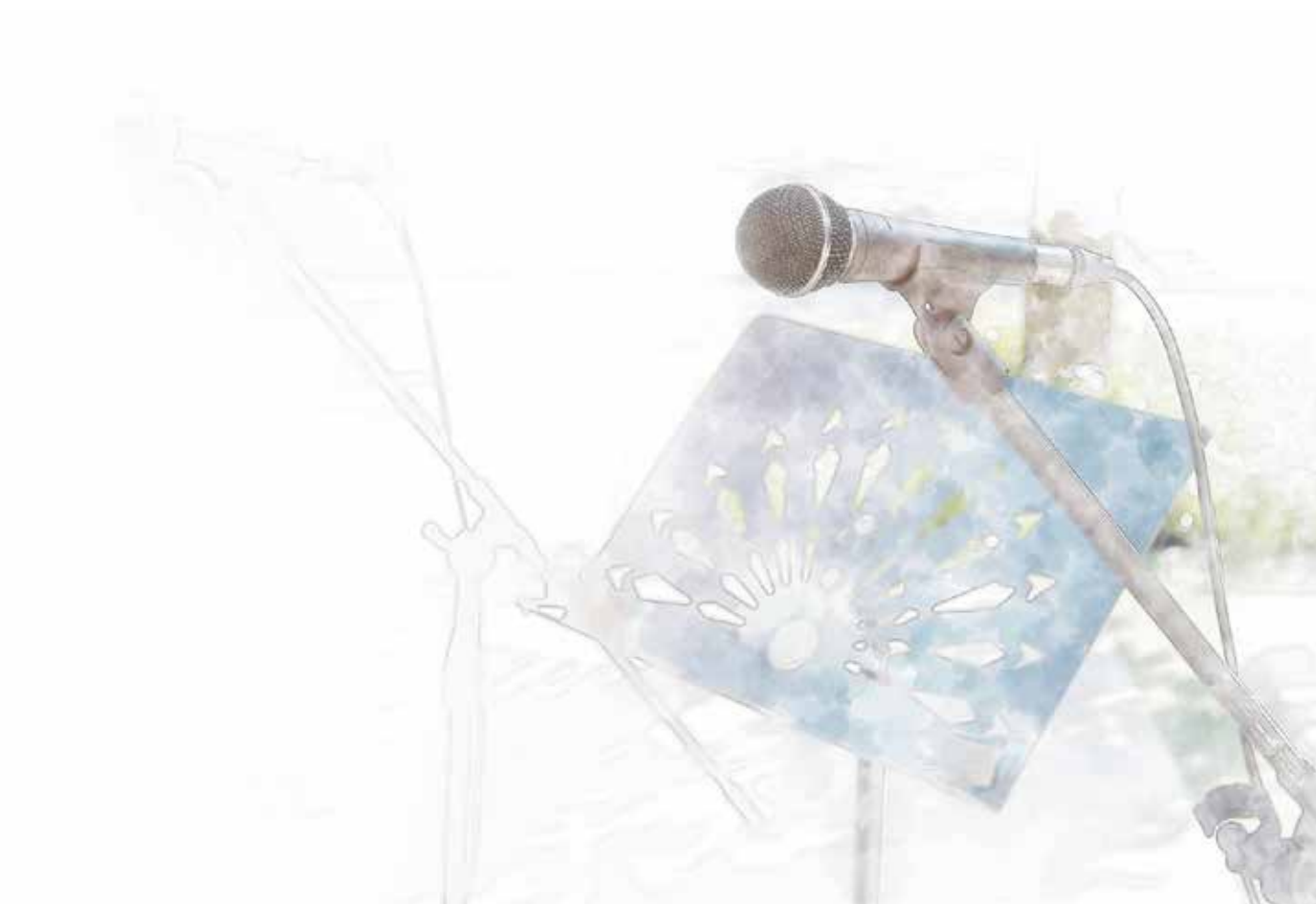
주요사업

- 작은 마을에서 함께 연주하는 버스킹
- 재능기부연주회

2021년 목표

- 각 파트별 파트장 선발, 연습 강화, 더욱 활발히 지역행사 참여
- 전문적인 지휘자님을 모셔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연혁 2016년에 시작하여 재능기부연주회를 많이 진행했음





노래가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하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삶의 힘든 고비들을 견뎌왔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탄 적이 있다. 가사 한 구절마다 의미를 부여하며 수없이 따라 부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쉽게 공감할 것이다. 이처럼 노래가 주는 치유의 힘을 믿으며 노래 부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포천여성합창단'은 포천에서 유일한 합창 공동체다.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지 궁금증을 따라가 보았다.

“포천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과 일반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솔모루 여성합창단이 우리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가정과 서로 교류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학부모 간 소통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모임 장소와 지원금 제공처가 달라지

면서 다문화 가정,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여 포천에 사는 여성 누구나 참여하도록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재정비한 것이 바로 현재의 합창단입니다.”

2016년에 결성하여 5년째 활발하게 활동 중인 포천여성합창단은 구성원 평균 연령에 비해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한다. 저마다 가정을 지혜롭게 꾸려온 살림꾼들이기에 이해의 폭도 넓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지역 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공동체는 지금껏 구성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해오다가 2018년부터 전문성을 키우고 도약을 꾀하고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일이나 취미활동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래는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노래를 부를수록 영혼에 날개가 하나씩 솟아나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행복을 우리만 누릴 순 없잖아요. 노래를 배우지 못해 부르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나 기관 행사





에 참여해서 공연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악기도 배워 연주회도 열고 음악과 뮤지컬을 접목한 공연도 만들고 싶고요. 정말 욕심이 많죠?”

포천여성합창단원들은 매주 수요일 물뚝교육공동체 강의실에서 모여 2시간씩 기본 이론과 호흡법을 배우고 노래를 연습한다. 한주 내내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단원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노래를 사랑하고 즐기는 이들이 만났기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부지런히 자선공연에 참석한 덕분에 문화원이나 대학교,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창단으로 시작한 그녀들이 때로는 연주단으로, 때로는 뮤지컬 공연단으로 변신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 나간다고 하니 몇 년 후에는 포천을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으로 변모하여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까? 그날에 울려 퍼질 멋진 선율이 우리 가슴과 귓가에 맴돌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노래를 통해 힐링하고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2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마을 전체가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하는
한사랑마을학교

대표자명 김은경, 염인정
구성원수 대표 외 10명
주 소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404 다동 104호
연 락 처 010-6889-7650

이름에 담긴 뜻 온 마음과 사랑으로 마을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공동체

주요사업

- 재미있고 즐거운 포천 여행 보드게임 만들기
- 프러보와 함께하는 디지털 수업

2021년 목표 계획했던 사업을 무사히 마치는 것

홍보채널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ansarangcommunity>



연혁

- 2017년 주민공모사업으로 포천히스토리를 주제로 교육교재인 보드게임 만들기
- 2018년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영메이커 활동
- 2020년 ~ 현재 주민공모사업 - 교구제작 개발 진행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 교육이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을 잘 성장시키면 그 지역의 미래, 나아가 나라, 세계라는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교육 교구와 교재 제작을 하고 있는 한사랑마을학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물을 갖다 주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샘물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면 계속해서 필요할 때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 샘물을 파는 방법부터 응용력,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교구나 교재를 만들고 있지만 좀 더 재미 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보드게임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 청소년들의 스터디 활동도 함께 이끌어가고 있고요.”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이사진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교재나 교구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까지도 고민 중인 한사랑마을학교. 얼마 전에는 공동체활동 공모사업으로 보드게임을 제작해 학교에 납품할 정도로 퀄리티는 보장이 된 셈이다. 더 잘 만들었어야 하는 아쉬움과 포부를 보이는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심어린 마음이 전해진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꽤 클 것 같다는 말에 아직 부족하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김은경 대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큰 꿈을 내비쳤다.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 교육 발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자부심도 강했다.

한사랑마을학교는 앞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 정보 소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예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다. 기초, 생활, 중급으로 구분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디지털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





양이나 참여 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얻지 않고 정보를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줄 생각이다. 한사랑마을학교의 교육 로드맵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대일 교육을 제공하고 작은 것부터 신경 쓰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보였다.

한사랑마을학교 공동체는 포천이 자랑스럽다. 천천히 준비해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포천시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에 대해 오늘도, 내일도 연구하고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 마을이 학교라는 생각으로 포천시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들의 내일 이야기가 설레며 기다려지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마을이 함께 나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22

구름 위 무릉도원처럼 아름답고
예쁜 백운계곡을 만들어 갑니다



포천을 대표할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는
백운계곡협동조합

대표자명 이종신
구성원수 대표 외 70명
주 소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연 락 처 010-4376-8888

이름에 담긴 뜻 백운계곡 상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

주요사업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사업

2021년 목표 더 나은 계곡! 더 나은 백운!

연혁 2020년 발족





포천 이동면에는 강원도 화천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예로부터 이 고개를 ‘흰 구름이 머물다 가는 고개’ 혹은 ‘맑은 물 계곡’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백운(白雲) 계곡’이다. 백운계곡은 워낙 물이 맑고 울창한 숲 덕분에 사계가 아름다워 운치가 뛰어나 명성이 높다. 올 해 들어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계곡 주변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불법 평상들을 철거한다하니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겠구나 싶었다.

“백운계곡상인 협동조합은 70명의 조합원이 모두 백운계곡에서 편의점이나 식당, 숙박업 등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모든 상인들이 힘들었겠지만 저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긴 장마 때문에 2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계곡 정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마냥 좋을 것 같았던 공공사업도 막상 들어보면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백운계곡 상인조합장님의 한 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내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다른 때 같았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여름 성수기에 길고 지루한 장마와 철거사업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지면서 상인 조합원들이 함께 공동체 교육에 참여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힘든 상황에 처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다.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철거사업.

처음 철거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관광특구 지정 재개발을 약속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백운계곡 상인조합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여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 후 교육을 받아 공모전에도 참여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하니 그동안의 상인들이 얼마나 배우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확이 있다면 상인들이 모여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맘먹은 거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며 어울리게 되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뒤도 좀 돌아보고 각자의 삶에 쉽표





를 찍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탄생한 백운계곡 협동조합 공동체는 이번 배움을 통해 영암에 있는 기찬랜드라는 곳에 견학도 다녀왔다고 했다. 월춘산 자락에 있는 계곡을 수영장으로 만들어 자연 속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주변에서 취사와 텐트 등의 숙박은 금지하며 계곡 근처 산 속 길을 따라 펜션들을 만들어 숙박업의 성행을 도모했다. 이 곳은 영암군의 관리 하에 관광명소가 되었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며 백운계곡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미래를 꿈꾸고 환경을 생각하며 손님들과 상인이 즐겁게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해보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비와 재생, 협력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구름 위 무릉도원처럼 아름답고 치유될 수 있는 백운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그 바람이 청량한 가을바람처럼 고스란히 우리를 감싸 안을 것만 같았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백운계곡 공동체입니다.



셋,



세대와 함께

01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우리에게 더 편한 세상이 될 겁니다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누리가구

대표자명 김윤희
구성원수 대표 외 23명(장애인 17명으로 70% 비중 차지)
주 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82-27
연 락 처 070-4837-6495~8

이름에 담긴 뜻 누리는 '세상'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나의 세상을 뜻하며, '나는 누리리'라는 뜻이기도 함. 이곳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약속을 의미함

주요사업 사무용가구 및 의자 제조(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과 관공서가 주 거래처)

2021년 목표

- 품질과 서비스는 물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좋은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감동을 실현해 나아가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매출 100억 달성 목표)
-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업이 되는 것



연혁

- 2013. 08. 23. 법인설립허가
- 2013. 10. 23. 나누리가구사업단 사업자등록
- 2014. 06. 1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 2014. 08. 18. 직접생산확인증명
- 2015. 05. 27.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등록
- 2015. 07. 23. 환경표지인증
- 2015. 11. 24. 단체표준인증
- 2016. 11. 09. KS제품인증
- 2017. 05. 25. KS제품인증-사무용의자
- 2018. 03. 08. 사회적기업 인증
- 2019. 11. 08.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 2019. 10. 26. 신사옥 준공식



‘나누리’라는 상호명이 왠지 낯설지 않다. 그리고 보니 병원부터 상담센터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누리가구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충분히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행복과 사랑을 평등하게 ‘나는 누리리’를 실천하고 있는 나누리가구. 그럼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할지 그 해답을 찾아봐야겠다.

“여기는 다른 곳과 조금 달라보이는데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익숙지 않음에서 낯설지 않음을 찾기 위해서였을까. 잘 모르겠다.

“장애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나는 붕 뜨고 거친 머릿결을 지니고 있는데 이 머릿결은 나라는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일 뿐이지 남에게 차별받을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이 동그랗다고 그런 걸로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세상의 많은 편견 앞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었던 미생의 장그래처럼 장애가 있든 없든 일에 대한 열정의 크기가 고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현실, 어쩌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편견이 더 큰 장애가 아닐까.

“나누리가구 탄생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열정과 의욕이 있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작지만 알찬 일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뭉쳐 만들었어요. 사무용가구를 만들어 판매하지만 회사 이익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근로의 보람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상호가 나누리가 되었어요.”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일터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누리 가족들. 그래서일까. 일을 시작하면 웃음기는 사라지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진지하다. 나누리가구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좋은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감동을 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고객이 먼저 알아보는 요즘이다.





“사실 저는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회사를 운영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장애인 직원보다 이직율도 낮고 일단 일이 익숙해지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훌륭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직무 교육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애정을 갖고 교육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누리가구가 만든 제품의 생산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제품의 품질 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일반 기업, 가정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어딘가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도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어딘가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 볼터치도 안 했는데 양 볼이 붙어지는 느낌이 온다.

“나누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있다면서요?”

“다른 회사들은 그냥 지나가는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특별하죠. 그날은 회식도 하고 감사장도 전달하며 모두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창립기념일인가요?”



나누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 궁금했다.

“창립기념일은 아니고요. 바로 4월 20일, 매년 찾아오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일 같은 날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나누리가구가 발판이 되고, 이를 계기로 동네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다르거나 틀리다고 표현한다. 장애인은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나누리가구. 웬지 모를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대목이다. 나누리 가족을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곳이 어떤 분위기일지 알 것 같았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소외됨 없이 일하는 보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02

황금빛으로 물든 별무리가 보이시나요



도전이 모여 큰 별무리를 만드는
골든네블라그룹

대표자명 이경남
구성원수 대표 외 6명
주 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418 (금현리)
연 락 처 (031)544-2330

이름에 담긴 뜻 골든네블라는 천문학으로 ‘성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운’처럼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지음

주요사업 파일, 바인더 제조, 소형가전, 방역용품

2021년 목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

홍보채널 홈페이지: www.골든네블라.com

연혁

- 2018년 02월 골든네블라 설립
- 2018년 11월 주식회사 골든네블라그룹 설립
- 2019년 07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어느 사회에나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절실한 새터민들과 소외 계층에게 빛나는 별무리와 같이 도전을 이끌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취재를 나섰다. 다소 어려운 상호지만 의미를 알고 나니 아름다운 별무리를 만나는 듯 했다.

“저희는 파일이나 바인더, 홀더, 필기구 등 2,000여 가지 이상 다양한 사무용품을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며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빠르게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죠.”

골든네블라는 의뢰하는 기관이나 기업 성격에 맞는 재질, 디자인을 적용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맞춤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서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골든네블라가 틈새시장에 진입해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바인더 제품은 보통 라벨 교체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덮개만 닫으면 라벨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1년 넘게 연구해 제품화에 성공했고, ‘2020한국브랜드리더대상’에서 바인더 브랜드상품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점을 개선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품 연구 개발에 매진하면서 국내외에서 기술 특허를 취득한 제품으로 우수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골든네블라. 차별화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 탄탄한 온라인 유통시스템 까지 더해 매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사업의 시작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019년 목숨 걸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새 터민으로서 살아남는 것 또한 힘들었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편향된 시선들이 더 어렵게 하더군요.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품질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셨군요. 저의 아파도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왔을 때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웬지 먼 친척을 만나는 것 같았다.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업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 떠신가요?”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판로 개척인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영리적 활동과 비영리적 활동의 중간 영





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리 활동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 없이 비영리 활동만 한다면 기업운영이 불가능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던 사업방향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어요. 시장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면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잘 결정한 거죠.”

빛나는 별무리라는 뜻을 가진 회사 이름처럼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과 같이 자신과 같았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다는 이경남 대표.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우선 어디에서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그곳엔 반드시 희망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남쪽 땅에서 황금빛 별무리를 이끌기까지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직도 그 여정은 계속되지만 의지가 빛나고 있기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골든네블라. 눈이 부실만큼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무리를 본다면 골든네블라가 떠오를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도전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밝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03

처음 보는 건데, 넌 이름이 뭐니?



피톤치드 가득한 관솔로 소통하는

천년관솔

대표자명	윤순권
구성원수	대표 1명
주 소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564
연 락 처	010-2614-3500

이름에 담긴 뜻 천년관솔은 천년동안 썩지 않는 나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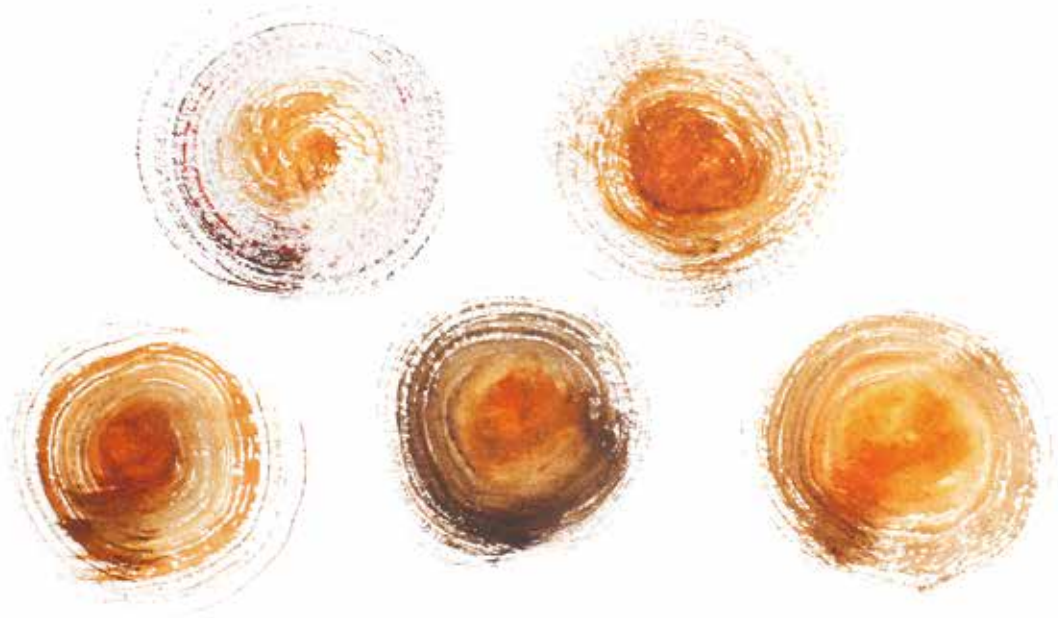
주요사업 목재, 목공 (관솔 관련 사업)

2021년 목표

- 더 많은 상품 개발과 제작
-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홍보채널

네이버 블로그(천년관솔) : <https://blog.naver.com/safeland3>
페이스북(천년관솔): <https://www.facebook.com/people/윤순권/100000139152273>



연혁

- 2018년 서울대 농생명과학기기원 시험성적서 발급
-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천년관솔 농업회사법인 설립
2019 목재박람회 참가
산림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20년 특허청 상표등록 '천년관솔'
산림청 그루경영체 강연
산림청 메가쇼 참가 예정(11월)
산림청 목재박람회 참가 예정(11월)



요즘 삼림욕하는 사람들이 ‘피톤치드를 마신다.’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둘레길이나 산에 가서 힐링하는 것이 트렌드를 넘어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힐링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넘어 직업 특성상 매일 앓아 있어야 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산에 간다. 작년 이맘때 북한산 정상 등반 실패가 아쉬워 다시 한 번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다.

“네, 내일 인터뷰하겠습니다.”

모처럼 산행이라 근육이 뭉쳐 뒹뚱뚱 우스꽝스런 걸음으로 천년관솔을 찾았을 때 도시에 서는 말기 어려운 묘한 향기가 내 코를 자극했다.

‘오늘 취재할 곳이 천년관솔이지? 관솔이 뭐였더라?’ 재빨리 검색해본다.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가지나 옹이를 관솔이라고 하는구나. 관솔에 불을 붙여 촛불이나 등불 대신 쓸 만큼 예로부터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였군. 향이 좋아 3개월을 우려 내도 소나무 향이 멈추지 않는다고? 이 녀석 꽤 괜찮은 놈이네~.’

“저에게는 참 낯선 단어인데, 관솔의 매력을 어떻게 알고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이곳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 중 하나여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화전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곳도 아니고요. 포천에는 잣나무가 많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면 마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관솔의 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판매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

한참을 말없이 서로만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내 걱정이 맞았나보다.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가 4배 많다는 서울대학교 시험성적서를 받았을 때 그런 걱정은 사라졌어요.”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가 많다고요?”

“처음엔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연구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천연국산 수제 잣나무 피톤치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잣나무 관솔을 활용해 관솔볼펜을 개발했고, 지금은 관솔 스포츠크림도 제작해서 명상협회나 요양기관, 한의원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





고 제작한다면 관솔의 효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윤순권 대표. 그는 포천지역 고령층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도 관심이 많다. 공기청정기 필터나 방향제, 방충제, 방부제뿐만 아니라 삼푸, 치약, 물티슈, 의약품의 원료로 관솔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 천년 관솔이 탄생된 이유는 분명했다.

“맞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도 소나무 향이 나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개인적인 정보를 말해버렸다.

“이거 드릴게요. 관솔 복주머니인데 방향제로 쓸 수 있어서 아이 방이나 차량에 놓아두면 좋아요. 인기 높은 제품이죠.”

천년관솔은 첫 시작으로 천년의 향기라 불리는 목걸이와 한국의 향기 휴대폰 스마트픽을 제작했다. 선뜻 내어주신 관솔 복주머니에서 착안해 공기청정기 필터도 개발하여 판매 중이란다. 나중에는 관솔마을, 관솔치유센터, 관솔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 그때는 가족 모두 데리고 놀러와야겠다.

“천년관솔 블로그가 있네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요새는 좀 뜸하게 관리하죠.”

“젊었을 때는 세상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젠 소통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잖아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늘 좋은 글이 있으면 블로그에 연재하고 페이스북도 이용해 일상을 공유한다는 그의 말에 내 얼굴이 붉어졌다. 아! 몇 년째 멈춰있는 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소환할 때가 온 건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느긋하게 즐기며 일하는 천년관솔. 앞으로 정성이 가득 들어간 관솔제품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본다. 서울까지 잣나무 피톤치드 빨리 전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관솔로 세상과 소통하고 마을에 활력을 만들어 갑니다.



04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늘 푸른~



따뜻한 온기를 품은 재질로 섬유를 제작하는
늘푸름섬유

대표자명 최종규
구성원수 대표 외 2명
주 소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116번길 18-9
연 락 처 (031)541-2604

이름에 담긴 뜻 섬유 제조 회사로, 언제나 늘 푸름을 유지하는 기업

주요사업 린넨이나 P.Wool 등을 소재로 한 임직 사업

2021년 목표

- 염색으로 한 제품 제작 예정
- 전국적인 판매 확산과 수출

연혁 2020년 늘푸름섬유 설립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서대로 부르다보니 의식주가 되었다고 한다. 뭐지? 집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옷이 제일 중요했다고? 지금은 이해가 가질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잠자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만들어 입어야 할 옷이 제일 중요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난 넓은 집이 필요한데...

‘늘푸름섬유라... 푸른색으로 염색해서 원단을 만드는 곳인가?’

단순한 생각을 뒤로 한 채 늘푸름섬유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섬유면지로 조금은 어지럽지 않을까 생각했던 내 편견이 스르륵 녹아버렸다.

“30년 넘게 섬유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섬유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먼지 많고 여기저기 원단이 널려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좋아,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

친구 중에 옷 공장 아들이 있다. 그 친구는 세상에서 옷 사는 것이 제일 아깝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보는 것이 옷이고 원단일 테니 제 값주고 옷 사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섬유먼지와 여기저기 널린 실타래와 놀았던 친구는 지금도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공장에 가는 걸 싫어했다.

“직원으로 일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직접 공장을 운영한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했죠.”

“그래서 늘푸름섬유를 설립하신거군요?”
복지에 대해 트인 시각을 갖고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난 이유가 당연해 보였다.

“그럼 늘푸름섬유는 주로 어떤 걸 만드나요?”

“주로 편직이 까다로워 타 업체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운 린넨을 소재로 임직을 하고 있어요. 린넨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염색을 한 완제품도 만들려고요.”

오랫동안 섬유업에 종사해 온 늘푸름섬유 직원들은 특수한 섬유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원사를 제작해 국내 시장





을 넘어 직접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역시 늘 푸르겠군. 발전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 근처에는 다른 회사도 많죠? 경쟁기업일 테고...”

“근처에 가발공장이 있는데, 지금 모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어요. 암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자극이 되고 있죠.”

뜻밖의 대답에 빨리 질문을 던져본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죠?”

“달이지면 해가 뜨잖아요. 밤이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는 거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지금은 임대 공장이지만 5년 후에는 자가 공장을 갖는 것이 목표예요. 직원들과 좀 더 윤택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10년 후엔 더 많은 직원과 함께 운영해가는 모두의 기업이 돼 있을 겁니다. 일자리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진정한 사회적기업이지 않겠어요?”



산업적으로 특화된 포천이 섬유 쪽으로도 유명해졌으면 한다고 말하는 최종규 대표.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공기 좋은 청정도시 포천에서 늘푸름섬유는 언제나 푸름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직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취약 계층까지도 챙길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싶다는 늘푸름섬유. 이런 마음이 뭉쳐 늘푸름섬유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직원의 마음으로 시작해 모두를 겨안을 넉넉하고 늘 푸른 기업입니다.

05

힘들어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야죠



도로에 안전함을 칠해주는

여명산업

대표자명	전상식
구성원수	대표 1명
주 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269번길 10
연 락 처	010-3532-1392

이름에 담긴 뜻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회사명 지음

주요사업 도로 도색작업과 도로 공사 시에 안전한 시공을 위한 주변 안전물 제작, 납부

2021년 목표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안전표지판 판매계획
-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

연혁 2019년 6월 설립





글을 쓰다보면 주인공의 이름을 고민할 때가 있다. 대부분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짓지만 가끔은 지인들의 이름을 사용하곤 한다. 성민이, 경선이, 종신이, 승현이처럼... 여명산업을 마주했을 때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을 따서 ‘여명’이라고 지은 줄 알았다.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딸만큼이나 이 회사를 사랑하려고요.”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고모리에 있는 저수지를 끼고 따라 들어가다 보면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한 여명산업. 작고 다부진 인상에 매사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전상식 대표는 낯선이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이 예전 같지가 않죠.”

전 대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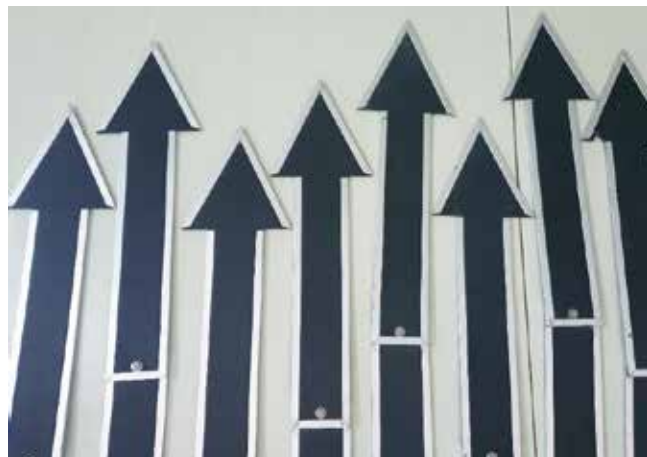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모로 여건이 안 되었어요.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주량이 하나도 없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인터넷으로 시도하는 것을 더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도로에 도색작업을 하거나 안전한 공사 시공을 할 때 도로 표지판과 시설물들을 제작하는 여명산업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 상황에 막막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가 잠식해 버린 일상은 비단 공사 업체까지 점령해 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텅 빈 사무실 모습이 한동안 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확실히 수주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존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 하청받아 일하는 형식인데 그마저도 안 들어오는 판국이라 이제는 다른 길로 모색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대면을 피하는게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국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노동 자체로도 고된 일상이 계속될 텐데 팬데믹 속에서 이들의 삶은 얼마나 치열할지 감히 내가 판단하고 정의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가 된 상태이지만 인터넷 쇼핑물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만 일해 온





터라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아직은 벅차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연구하며 신중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힘을 내야죠...”

사실 주변에서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모두가 그런 상황이니 서로를 위로하며 견뎌야하고, 비록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밖에는 건넬 수가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면 되는지 알려줄 사람도 없고 돌파구를 위해 새롭게 직원을 뽑기도 그렇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기회도 있고 이번 위기를 발판삼아서 더 성장해야죠.”

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것저것 긍정의 힘을 보여주신 전 대표의 모습에 실전에서 쌓은 풍부한 노하우와 연륜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비된 전문가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벅격대는 현실 속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도 새로운 목표가 있으니 걱정은 내려



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 그니까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모두가 혼돈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다지며 추진해 나가는 전상식 대표의 다짐은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 공동체의 One Point!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마을활동가 코링커(CO-LINKER)

코링커는 마을활동가 전문 인력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포천시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마을 활동가로 위촉된 사람으로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코링커가 하는 일

01. 우리 동네 공유공간을 조사하고 필요한 공간을 알려드립니다.
02. 포스쿨 공동체 교육안내 및 진행과정들을 도와드립니다.
03. 주민제안공모사업 홍보, 모니터링, 정산보조 등을 도와드립니다.
04. 신규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5. 공동체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06. 공동체 관련한 공모사업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07. 타 지역의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도와드립니다.
08. 공동체가 발전하면 사회적 경제(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강종수
(010-8895-1228)
신북면, 포천면, 군내면



김동현
(010-7192-8098)
신북면, 포천면, 군내면



유재춘
(010-6219-6527)
이동면, 일동면, 영중면, 화현면



임선호
(010-8991-6290)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선단동



장진희
(010-5882-0545)
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최재박
(010-2098-7848)
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황은정
(010-2055-5547)
소흘읍, 가산면, 내촌면, 선단동

미니 인터뷰

마을활동가(코링커) 그들에게 묻는다



강 종 수

1. 마을활동가(코링커) 활동을 하면서 뿌듯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인증 준비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해 했던 공동체들이 준비를 잘해서 인증 받은 후 인증서를 전달해 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민스교육 공동체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모범적이었으며 도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3. 마을활동가(코링커)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링커에 대한 인식(홍보) 부족으로 자원조사 과정 때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제안사업을 여러 번 했었던 공동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자원조사가 어려웠던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4. 마을활동가로서 공동체 혹은 포천시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공동체 활동이 사업비보다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을의 행복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 진행이 아니라 연속적인 공동체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와 상관없이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 유지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로 인해 마을도 행복해지는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행복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코링커 대부분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에서 바라는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에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몇 주 만에 만들어지는 코링커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는 전문 코링커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미니 인터뷰

마을활동가(코링커) 그들에게 묻는다



유재춘

1. 마을활동가(코링커) 활동을 하면서 뿌듯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회원들의 변동이나 기타 서류 전형에 대해 도움을 청했을 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처리했을 때
- 공동체를 구성하려 할 때 공모사업(보조금)이 아닌 순수한 공동체를 해야만 한다고 설명해 주고 그에 대해 수긍하였을 때
- 공동체를 조금 더 알고, 포천시의 공동체를 함께 걱정했을 때

2. 가장 기억에 남는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 장독대 마을 : 포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이자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하는 공동체로서 늘 새로움과 변화됨을 추구하여 발전해 가는 모습이 훌륭해 보인다.

3. 마을활동가(코링커)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뭔가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공동체 대표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할 때(원하는 것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공동체 대표들과 코링커들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 있어 대표들이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음

4. 마을활동가로서 공동체 혹은 포천시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끝내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과 허전함이 공존한다.
- 포천시는 평생학습 도시이다. 물론 공동체 역시 평생학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시에서 관심 갖기를 바라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포천시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었으면 한다. 포천시의 역할을 기대한다.

미니 인터뷰

마을활동가(코링커) 그들에게 묻는다



최재박

1. 마을활동가(코링커) 활동을 하면서 뿌듯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영북면 담당 코링커입니다. 영북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참여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아가도 눈길 안 주시던 분들이 이제는 제가 모르는 일에도 불러주시고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 소개로 연락드렸다 라는 전화를 받고 안내해드릴 때, 그때 제가 '아 나도 이제 여기 일원으로 받아주셨구나'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저는 '한탄강 이야기' 공동체와 '산꽃마을' 공동체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탄강 이야기는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을 딛고 일어난 공동체로서 이제는 수자원 공사와 협업하여 공동체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꽃마을 공동체는 가장 큰 문제인 다툼이 적어졌다는 점입니다. 공동체는 대나무 숲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충분히 차올라서 찾아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공동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마을활동가(코링커)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지역에 따른 업무량이 다릅니다. 그에 따른 코링커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 마을활동가는 생업이 아닌 부업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링커만 해서는 생계유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코링커가 담당하는 지역에 일을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생업으로 민원 업무 처리를 못 하게 되었을 때 그간 쌓아두었던 신뢰나 친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속해서 관리하여서 1개 읍면동에 4~5명의 활동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코로나가 2021년에도 지속할 경우를 생각해서 온라인 업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8~9월 영북~일동, 이동면은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 찾아 봐야 하지만, 또 코로나 상항상 찾아뵙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4. 마을활동가로서 공동체 혹은 포천시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2020년 정말 많은 일로 힘드셨을 겁니다. 상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의 시작, 역대급 장마, 그리고 다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과 AI 조류독감... 사회가 안정화되기 전에 사건이 계속 터져서 혼란 속에서 2020년 공동체를 운영해 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포천의 모든 공동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에, 코링커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천시 공동체 존경합니다. 화이팅!

마을활동가(코링커) 활동 사진



2020 포천시 공동체 자원 조사 사례집

FORTUNATE POCHÉON

공동체를 엮다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 포천시
펴냄 일자리경제과/포천시 공동체자원센터
기획/편집 포천시 일자리 경제과 (지역공동체팀)
디자인 수목원가는길(경기도 포천시 호병로 29-6)
주소 (우)1114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신읍동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대한민국
전화 031-538-4426
팩스 031-538-2299
전자우편 tpkmy2020@korea.kr
홈페이지 <http://www.poccomm.kr>

©2020 포천시

이 책의 저작권은 포천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